

2014년 (사)제주학회 춘계심포지움

제주-몽골 학술문화교류를 위한 ‘탐라 몽골학’ 기반조성 노력



2014. 06. 30

제주한라대학교
오 영 주

몽골 현지 답사(1)

- 1차 여행: 2010년. 7월 1일~6일(6일)
 - 몽골요리실습(울란바트로, Palace Hotel)
 - 게르체험
 - 양도축 재현 조사
 - 국립박물관 조사



몽골 현지 답사(2)

- 2차 여행: 2011년 08월 08일~15일
- 민속시장 조사
- 마유 휴양지 조사
- 세계 몽골학자 국제학술대회 참가



몽골 현지 답사(3)

- 3차 여행: **2012. 07. 21(토) ~ 07. 29(일), (9일)**
- 조사지역: 올란바타르, 다르항, 수흐바타르, 알탄볼락 카흐타, 갈로트호수, 올란우데, 바이칼, 수하야, 다르항, 에르덴, 테렐찌



몽골 현지 답사(4)

- 3차 여행: 2013. 07. 1(토) ~ 07. 10(수)
- 조사지역: 홉드 : 홉드 아이막 박물관, 도트 휴양지, 멍흐 하이르항 산
바양얼기 : 차강골, 델롱 솜



목 차



1. 왜, 제주-몽골 문화공동체 구상인가?
2. 연구사례 I : 제주 몽골 식문화 비교
3. 연구사례 II : 석인상(돌하르방) 비교
4. 연구 사례 III : 기타 생활문화의 비교
5. 지자체 차원의 몽골교류
6. 결론 및 제언

오늘의 제주와 몽골의 만남
그리고 '탐라 몽골학'을 위하여





1. 왜, 제주-몽골 문화공동체 구상인가?

- 1) 몽골과 제주의 만남
- 2) 大元 및 雲南 도래 제주 성씨

몽골족 마을은 언제 어떻게 해체되었나?

'8.28사건' 최영, 몽골족+가담자(토착인) 토벌 상륙작전 감행 (30일간 교전)

“우리 동족이 아닌 것이 섞여 변을 일으켰다”

“칼과 방패가 바다를 뒤 덮고, 간과 뇌는 땅을 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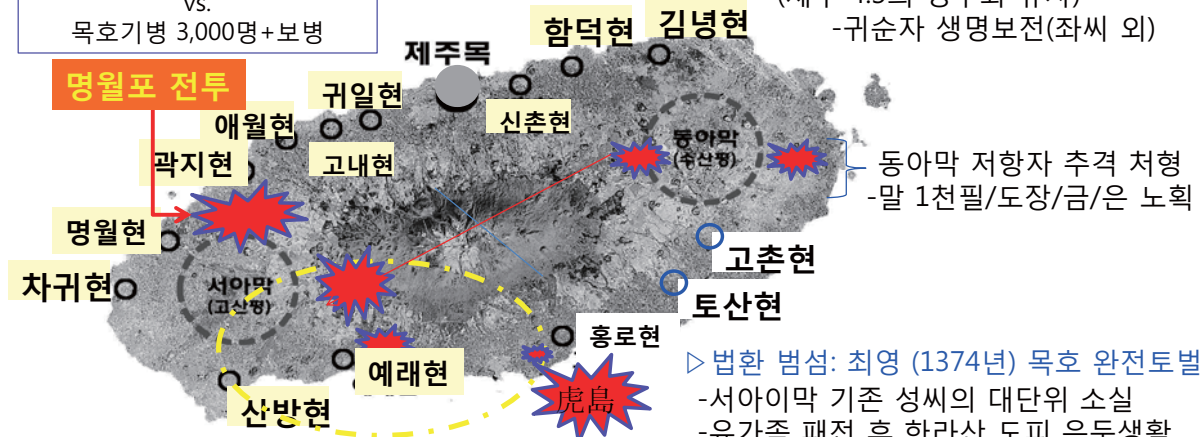
100년 몽골족 마을의 해체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1374년 8월 28일
2만5,605명(최영)+전함 314척
vs.
목호기병 3,000명+보병

≡ 당시 고려의 전군 상응

-동아막 서아막 성 초토화
-특히 명월/예래/홍로현 疏開 가능성
(제주 4.3의 경우와 유사)
-귀순자 생명보전(좌씨 외)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 관음보(觀音保) 투신 자살
초고독불화(肖古禿不花) + 아들 3인 참형

▷ 법환 범섬: 최영 (1374년) 목호 완전토벌

-서아막 기존 성씨의 대단위 소실
-유가족 패전 후 한라산 도피 은둔생활
(조선시대 우마도적 1천인-> 650명 강제이주)
-신분 감추기 풍족 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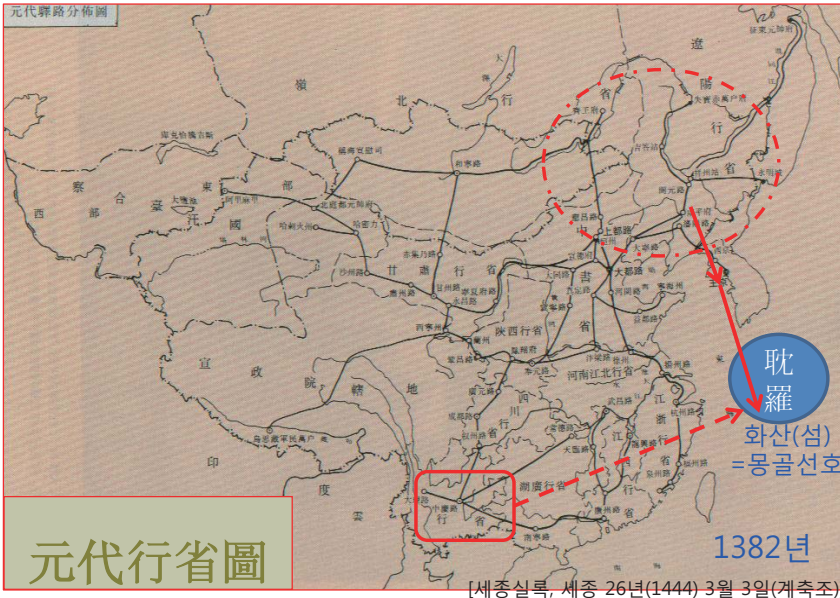
징기스칸 황금씨족 제주도 권당이 되어 도민으로 살아가다

1차 입도: 1382년 4월, 원난성 위순왕자 바이바이태자+아들 육십노+가족 일원 입도하다

2차입도: 1387년 12월, 징기스칸 황금씨족(키야드 보르지기드) 80호 제주로 안치하다

80호 x 4인 = 320명, x5인=400명 /집은 85채

3차입도: 1389년 4월, 투항한 망국 元朝諸王을 탐라국으로 보냈다(명태조실록, 25)



1389년: 북방정벌 시 귀순한 달달친왕 등 80여호 및 원조제왕 등 탐라 안치



1389~현재 700년 이상!!

징기스칸 로얄헤밀리 제주 집단거주 중



-운남 1381년 12월 명의 침공으로 멸망

-그 해 4월 5일 양왕 등 (쿠빌라이칸 손자) 가솔 제주로 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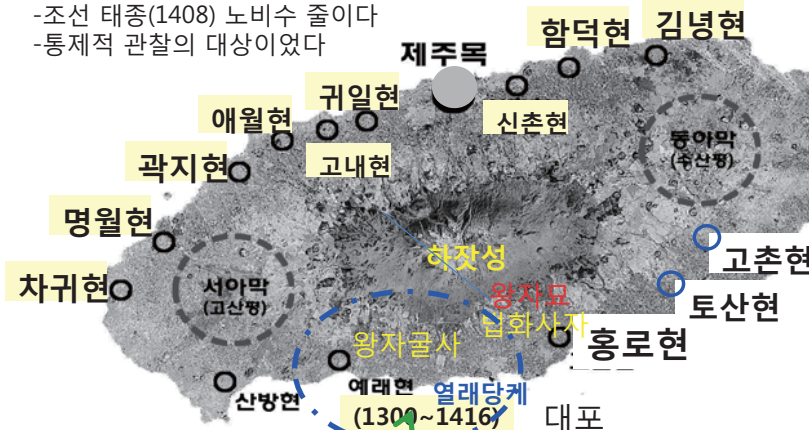
-제주도민과 결혼(林鬱)

몽골 로얄 헤밀리 빌리지는 어디인가?

古 猊來縣(1300~1416)은.... 산방현과 홍로현의 중간 지역

법화사지 또는 바로 인접지 보다는...

- 주원장이 법화사를 용의주도하게 주시했다
- 동불상을 명으로 가져갔다
- 조선 태종(1408) 노비수 줄이다
- 통제적 관찰의 대상이었다



예래현성(猊來縣城) 터 : 둘레가 4백 98척

솔대왓, 병막 다투, 환해장성, 東寺(절), 西寺(절), 창고왓, 공마로, 大王水, 小王水, 왕자굴

負兒石(아기업게돌, 미륵불), 군산 쌍선망월석, 불상출토

예래동 성씨: 姜金梁秦成張吳肖左元周李(성씨 참조)

※※ 빈번한 예래 혼인촌: 하원, 장천, 감산, 대포, 회수

중문면은 윤씨와 같이 관명에 의해 입도하거나...(중략)... 은둔자, 유죄인 특수계급자 등의 자손으로 구성된 취락이다.

(마주다 이지치, 濟州島聚落の地誌學的研究, 1939)

하원 법화사지

왜, 몽골황실은 법화사라는 이름을 좋아했나?



비보사찰인 법화사와 수정사의 노비수를 정하다

議政府啓定濟州法華、修正二寺奴婢之數。啓曰:“據濟州牧使呈, 州境禪補二處, 修正寺見有奴婢一百三十口, 法華寺見有二百八十口。乞將兩寺奴婢, 依他寺社例各給三十口, 其餘三百八十二口, 屬典農。”從之。

노비족과 왕족의 구분

원대 몽골인 제주도 입도 현황

입(출)도 연도	입(출)도자	인원(명) (+증, -감)	성별		비고
			남	여	
1273년 (원종 14년, 지원 10년)	元군인	+700	○		몽골+漢人(北人)+色目人
1275년 (충렬왕 원년, 지원 12년)	元도적, 죄인	+100	○		일반절도자≠도적(정치범)
1277년 (충렬왕 3년, 지원 14년)	元 죄인	+73	○		5월 33명, 8월 40명
1282년 (충렬왕 8년, 지원 19년)	蒙漢軍	+1,400	○		일본 원정 후 탐라 방어
1283년 (충렬왕 9년, 지원 20년)	蒙漢軍	+0,000 (원대 최대)	○		3차 일본정벌 계획(右丞 閼梨帖木兒 군대 입도, 몽골+漢人(南人, 北人)+色目人)
1284년 (충렬왕 10년, 지원 21년)	元군인	-400	○		家長(妻子 원에 거주자)
종합: 1273년~1294년		元군인	계: 최소 1,400	남성	쿠빌라이 칸 사망 법화사지 건축(1269~1279년)
1273년~1365년	관원·수행원, 유배인	+000	○	○	초토사, 다루가치, 안무사, 만호, 우승 등 고급관리 (외관 T/O 7명), 원세조 사망 후 고위 관리 유배
1366년 (공민왕 15년)	목수	+약 40	○	○	元朝梓人 元世 등 황실궁전 건축, 11호 x 4인/호 = 44명
1374년 (공민왕 23년)	탐라몽골인	-000~0,000	○	○	목호의 난으로 사망(서아이막 명월포 전투 목호 기병 3,000명 항전, 동아이막 000명 항전)
1382년~1389년	징기스칸 왕족	+400~	○	○	1차입도: 원난 위순왕자 가족 2차입도: 황금씨족 80호 3차입도: 元朝諸王 가족

원대 몽골인 제주도 이주자 시대별 특징(1)

1. 초기(20년: 1273년~1293년) : 몽한군 남성+제주여성 혼인기

- 삼별초 진압, 일본 원정을 위한 군(몽한군) 중심의 입도: 몽골인>한인(북인)>색목인
- 쿠빌라이의 해양전선 구축을 위한 탐라의 몽골화 정책(죄인, 조선기술자, 관원)
- 원 국립목장(중산간 개발) 건설 : 동아이막, 서아이막 (목호 등 목축기술자 파견)
- 처자가 있는 가장 군인의 원으로 귀국(400명)
- 미혼 군인 제주정착- 제주여성의 (몽골 남성) 배필 선호 성행
- ☞ 남성 위주의 이주 정책에 의한 다문화 가정(추정 1,400호 내외)

2. 중기(80년: 1294년~1373년): 다문화(혼혈화 성행) 진행시기

- 탐라의 집중적 몽골화 진행: 다문화 가정 인구 급증
- ※ 가정
혼혈 1세대: 1,400명x3명(자녀 3)=4,200명, 혼혈 2세대: 4,200명x3인= 12,600명
(삼별초 진압 당시 제주 인구수 = 약 10,000명)
- 이주자: 여성포함 가족형태 파견(관원 및 수행원, 건축 목수), 단독 유배인 등

원대 몽골인 제주도 이주자 시대별 특징(2)

3. 말기(20년: 1374년~1394년): 다문화 가정 완성시기

-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대단위 손실: 최영 군대에 의한 목호 토벌 작전 (피신자 및 투항 등 귀순 가족 생존, 저항자 가족 처형=000명~0,000명)
- 몽골 목호 다문화 가정의 몰락(신분 감추기 풍조 시작)
- 진성 몽골인 징기스칸 왕족 가정 입도 80~100호(약 400명 내외)
- 몽골 왕족의 제주인과 혼인 시작

☞ 추정: 몽골인 입도 100년 경과- 제주 가정의 50% 이상 다문화 가정

※ 조선 초기 제주도 인구: 1402년(태종 2년)→ 5,207호 8,324명

가구 당 1.6명 → 1374년 목호의 난에 의한 결손가정이 대부분을 차지

제주의 목자 (牧子), 그들은 누구인가?

동몽골 출신=탐라 입도?

- ✓ 몽골 스텝의 유목민 달달인
- ✓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
- ✓ 오랜 세월을 두고 제주의 낙토에서 생활해온 사람
- ✓ 다른 곳으로 옮겨 살려야 할 대상

↑ 몽골의 재건을 두려워함



명나라 황제가 왕에게 약재(藥材)를 주면서 친히 장자온 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년에 그대들의 나라가 제주 목자(牧子)의 일로 하여 나에게 표문을 제출하였다.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 제주의 이 목자들은 원나라의 달달(達達) 사람으로서 본래 목축으로 직업을 삼고 농사지을 줄은 전연 모르며 또 오랜 세월을 두고 제주의 낙토(樂土)에서 성장하고 생활하여 온 사람들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것들이 전번에는 그대들의 나라에서 파견한 윤재상(尹宰相)을 살해하였다 하여 이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살리자고 하였으나 그것들이 아마도 국왕의 호의를 알지 못하고 다른 일을 저지르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이곳으로 오지 못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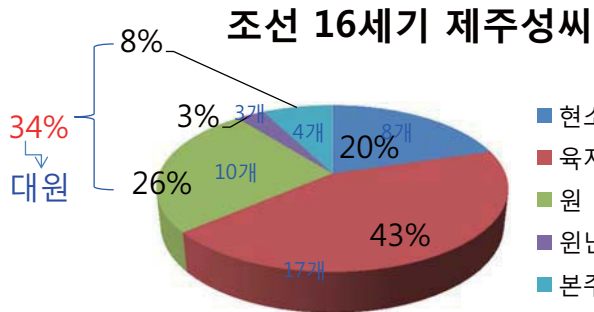
<고려사> 제43권 - 공민왕 임자 21년(1372)

신증동국여지승람 속의 조선시대 제주의 성씨

분류	성씨	내용
현소속	정(鄭)·김(金)·이(李)·문(文)·안(安)·현(玄)·함(咸)·양(楊)	고려중기~말기 육지에서 들어온 성씨 ※제주 고(高), 양(良), 부(夫), 문(文)씨는 토성
내성(來姓)	김(金)·이(李)·박(朴)·임(林)·유(兪)·주(周)·조(趙)·송(宋)·정(鄭)·홍(洪)·서(徐)·최(崔)·오(吳)·차(車)·지(池)·한(韓)·마(馬)	도래인(渡來人; 중국에서 들어 온 자 포함) 성씨
원(元)	조(趙)·이(李)·석(石)·조(肖)·강(姜)·정(鄭)·장(張)·송(宋)·주(周)·진(秦)	원나라(몽골)시기의 목호+군인+죄수+조선기술자의 자손
운남(雲南)	양(梁)·안(安)·강(姜)·대(對)	명(明) 나라 초년에 운남(雲南)을 평정하고 양왕(梁王)의 가족을 옮겨 제주에 안치

출처: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선 중종 25년(1530)

※명나라 초기 명나라 경내에서 새로 만들어진 몽골인들의 성씨 吳, 安, 柴(시), 馬, 趙, 宋, 張, 金



1387년 → 15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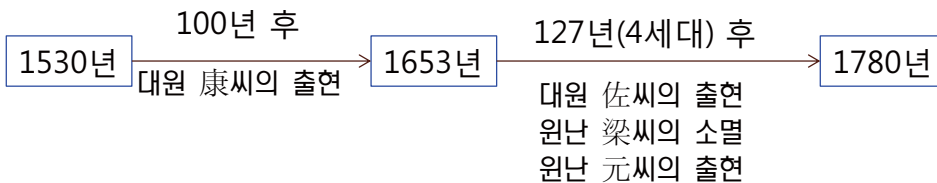
143년 경과 후 총 42개 성씨 중 14개 성씨, 34%를 점유(인구수 고려 않은 단순 성수 비교)

결론: 원(원)의 조직적 의도적 몽골화 감행!!

탐라-몽골은 운명적 관계

조선시대 연별 大元 및 雲南 도래 제주 성씨 현황

연대	대원(大元)												운남(雲南)					출처
	趙	李	石	肖	姜	鄭	張	宋	周	秦	康	佐	梁	安	姜	對	元	
1530	○	○	○	○	○	○	○	○	○	○	-	-	○	○	○	○	-	신증동국 여지승람
1653	○	○	○	○	○	○	○	○	○	○	○	-	○	○	○	○	-	탐라지 (이원진)
1704	○	○	○	○	○	○	○	○	○	○	-	-	○	○	○	○	-	남한박물 (이형상)
1780	○	○	○	○	○	○	○	○	○	○	○	○	-	○	○	○	○	제주읍지 (규장각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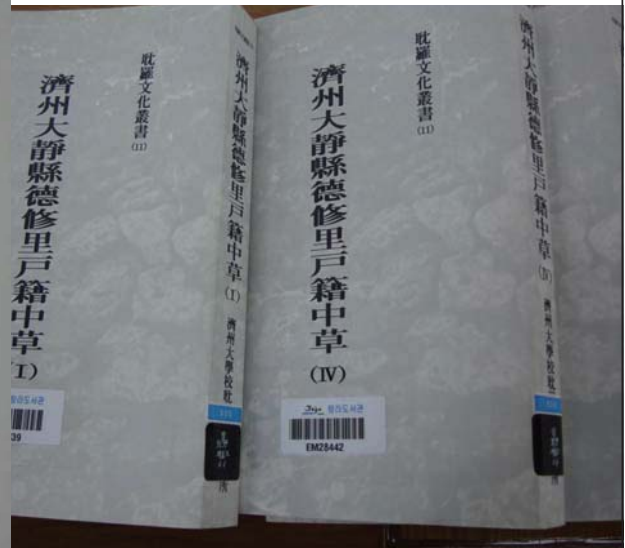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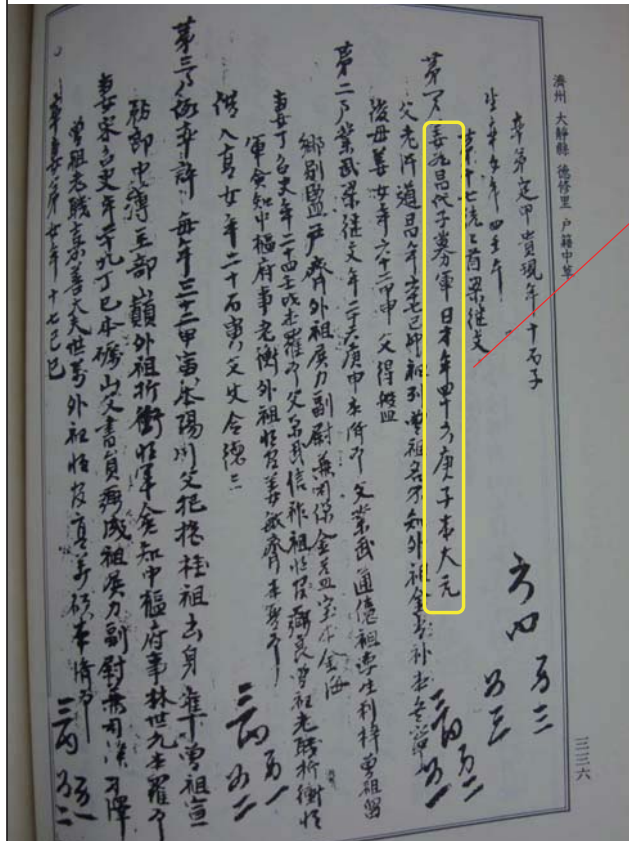
1825년, 당당히 본을 '大元 姜'씨라고 쓰다

대정현 덕수리 호적중초

제17통 1호 거주(18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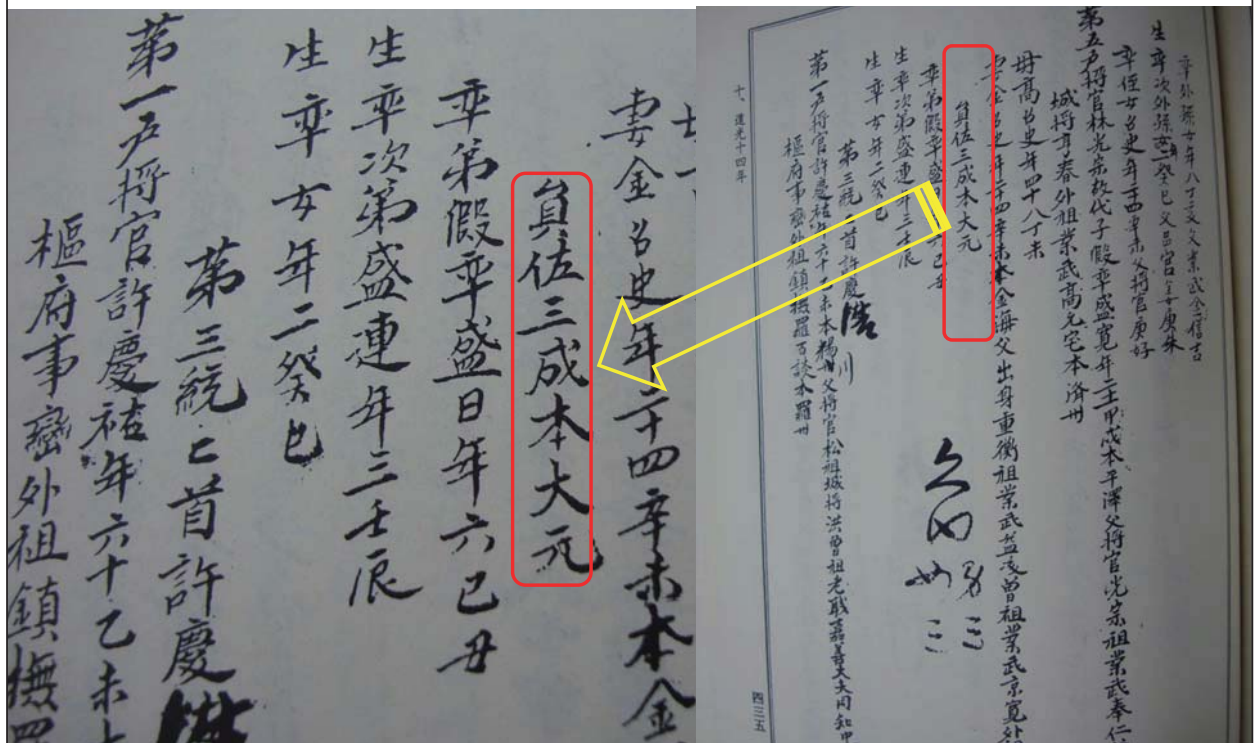
姜道昌 代子 募軍 日才

강도창의 자, 직역 모군, 성명 강일재
본 大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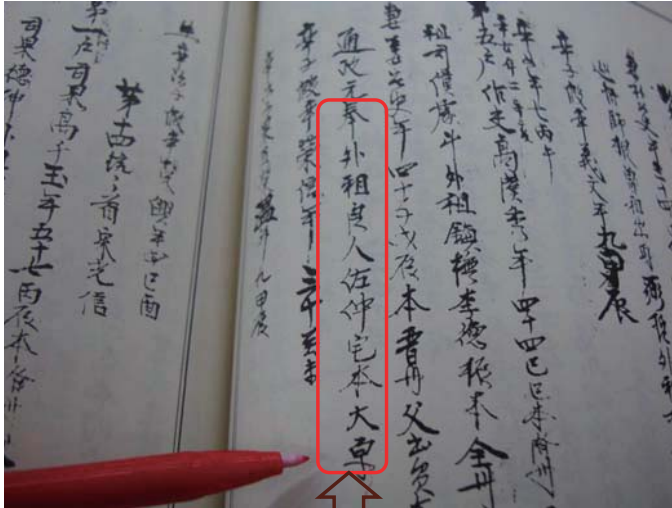
1834년, 당당히 본을 '大元 佐'씨라고 쓰다

대정현 덕수리 호적중초제2통 5호(18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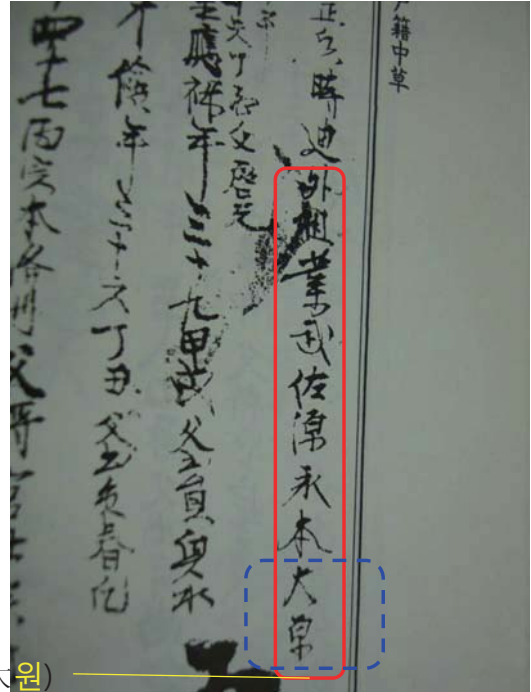


1834년 18년이 지난 후 1852년에는;
왜, 佐(좌)씨의 본을 '大原'/(~~元~~) 이라고 했을까?

1852년, 대정헌 덕수리 호적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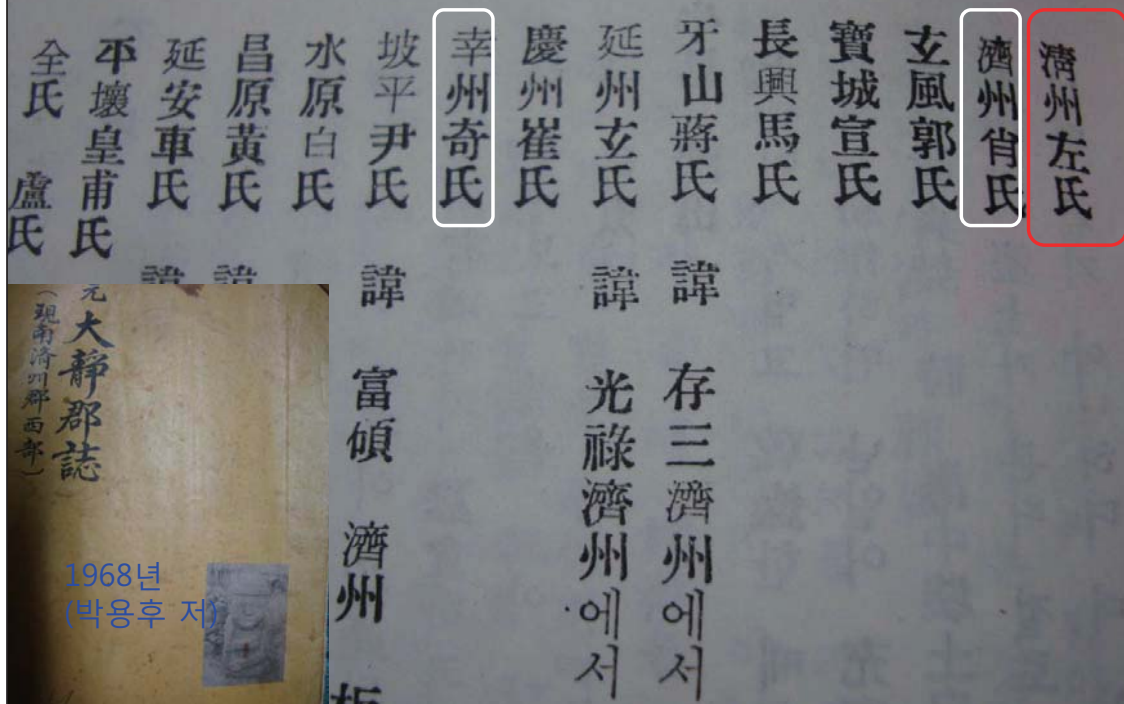
외조(外祖) 좌중택(佐仲宅), 양인(良人)



외조(外祖) 좌원영(佐原永), 직인(業武), 본대원(本大元)

1968년 元大靜郡誌, 왜 '清州左氏'로 표기되었는가?

'大元 佐'씨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1968년
(박용후 저)

'清州左氏'

좌자이 左自以(高麗 名醫)

시조 형소의 아들. 2대 감목관이라 의술에 능통한 명의였다. 당시 고려의 왕후가 중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하자 일관(日官)이 천기를 보고 「남쪽 절해고도에 명의가 있는데 그 사람만이 왕후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아뢰었다. 입궐의 명을 받고 상경, 왕후의 병을 완쾌시켰다. 이에 탄복한 왕이 그가 살던 한동리(漢東里) 일대를 하사했는데 지금도 그곳은 <좌가장(左哥場)>이라 불리고 있다.

좌한기 左漢棄(高麗 官職: 監牧官)

시조(始祖): 좌형소(左亨蘇) 원(元)나라때 중국(中國) 변경(京)에 살다가 고려(高麗) 말(末) 탐라 목마장의 감목관(監牧官)으로 건너와 정착.

제주도가 발상지인 좌씨는 형소(亨蘇)가 죽음에 이르러 "사람은 그 뿌리를 잊어서는 안된다."하며 대대로 살아오던 중국(中國) 산둥성 청주(靑州)를 본관(本貫)으로 할 것을 유언으로 남겨 후손(後孫)들이 청주를 관향(貫鄉)으로 삼았으나, 1922년 조선(朝鮮) 호적령에 따라 청주라는 지명(地名)이 한국에 없어 음이 이같은 청주(靑州)를 본관(本貫)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한말 · 일제강점기 고종대의 인물로 유학에 능하여 제주향교의 훈장으로 많은 후진들을 길렀다.

직임관 左任瑄(大韓民國 仁術家)

일제 때 독학으로 의생(요즘의 한의사) 시험에 합격, 명의로서 명망이 높았고 도내 전역에서 그의 신세를 안 진 사람이 없을 만큼 인술을 베풀었다.

太元佐	~19세기 중반
太靜佐	朝鮮氏族統譜(1924)
濟州左	20세기초
淸州左	일제강점기

인구분포(1985년 현재)

지 역	인 구 수	지 역	인 구 수
서 울	207	충 남	8
부 산	102	전 북	10
대 구	7	전 남	8
인 천	6	경 북	40
경 기	46	경 남	23
강 원	14	제 주	1,318
충 북	2	전체인구	1,791

佐

zuǒ

【英文】Zuo, Tzuoo, Dzwo.

【源出】姓, 见《万姓统谱》(15, 21)。

【民族】满、蒙古(344)、傣、瑶(561)、黎等民族均有此姓。

출처: 中國姓氏大辭典, 江西人民出版社, 2010

【分布】分布较广, 约占全国人口的 0. 0062%。贵州、湖北两省多此姓, 约占全国佐姓人口的 77%。

【人物】佐皓, 明时博兴人, 正统中任登封县丞(15, 21)。

佐瑪囊本 [~玛 ~ ~]
zuǒmǎnángběn

【英文】Zuomanangben, Zeimangnangben, M...

예래동에서 초00 거주 확인 가능

- 본: 미표시
- 전 거주지 감산
- 대수: 8대
- 자손명: 0훈
- (예래동지, 1993)

濟州 肖氏

제주초씨 약사

초씨의 본관은 제주 단본이고, 시조는 초고도(肖古道)이다.

1930년도 국세조사 당시 제주도 좌면에 6가구가 있었는데, 좌면 상모리에 살던 초대왕(肖太王)이란 사람에 의하면 그의 조상은 본래 중국 한(漢)나라 사람으로 본성이 초씨(趙氏)였는데, 그의 10여 대 조인 초고도 때 <조(趙)>에서 <주(走)>자를 떼어 버리고 <초(肖)>로 개성했다고 한다. 한편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는 제주초씨를 원(元)나라에서 투화(投化)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어느 연대에 누가 입국했는지는 상고할 수 없다.

문헌상에 나타난 인물로는 조선조에 통정대부를 지낸 초성기(肖星起)가 있으며 1985년도 인구조사 당시 전국에 93명이 살고 있었다.

<세계표>

(始祖一世)
肖古道
——
星起
——
有信

仁元 — 安國
廷元 — 安默

목호(牧胡)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
초고독불화(肖古秃不花), 관음보(觀音保)
등의 나의 신하를 살육하고....

(고려사 제 44권 공민왕 갑인 23년, 1374년)

중국 운남성 소씨의 한족 성씨화 작업

萧氏宗亲 ‘纠肖复萧’ 系列宣传画

纠肖复萧，从你我做起。



등(藤)과 침(葛)과 같아 서로 얽혀 각 파의 구별이 있다 하나,
모두 삼성(三姓)으로부터 근원되었다고 말한다.

고(高) 양(良, 후에 梁으로 고침) 부(夫)가 가장 먼저이고,
그후에 문(文, 寶城의 福城人이 들어와서 고씨의 사위가 되고 고씨
를 이어 王子가 되었다)

정(鄭) 김(金) 이(李) 문(文) 안(安) 현(玄) 함(咸) 양(楊)씨는 함께 본주의 현
(縣)에 속한다.

김(金) 이(李) 박(朴) 임(林) 유(兪) 주(周) 조(趙) 송(宋) 정(鄭) 홍(洪) 서
(徐) 최(崔) 오(吳) 차(車) 지(池) 한(韓) 마(馬)씨는 함께 다른 곳에서 왔고,

조(趙) 이(李) 석(石) 초(肖) 강(姜) 정(鄭) 장(張) 송(宋) 주(周) 진(秦)씨는 함께
원 나라에서 목마(牧馬)할 때 남겨진 종족이다.

양(梁) 안(安) 강(姜) 대(對)씨는 운남(雲南)에 속하는데, 대명(大明)초에 운남
을 평정하였을 때 양왕(梁王) 가족들을 옮기어 본주에 안치한 것이다.

이들이 등(藤)과 침(葛)과 같이 서로 얽혀져서 비록 각 파의 구별이 있다 하
나 모두 삼성(三姓)으로부터 근원되었다고 말한다.

[이형상, 남한박물, 지성조1704]

풍기 진씨, 진주 진씨, 대원 진씨

□ 제주 거주 진씨: 1950년 말까지 본관을 晉州로 통일

- 1960년 각 파간 후손 본관 근원을 확인 조사 실시→ 1960년 제주 지방
법원에 본관 호적 정정 신청서 제출→1960년 5월 27일자로 적격 판결

☞ 장파(長派: 판포)의 일부와 말파(末派: 납읍)인 진의한(秦義漢)의 후손
본관 진주(晉州)→ 풍기(豐基)로 정정.

옛 본관 진주 고수 그룹은 중파(仲派: 명월) 진인한(秦仁漢)의 후손

□ 장파(長派: 판포)의 일부 후손: 제주지방법원에 본관 호적 정정 허가 신청

- 진씨가 귀화 전 중국 대원(大元)이었다는 역사고증을 통해 본관을 대원
으로 주장

☞ 1968년 9월 26일자로 "풍기를 대원으로 변경함을 허가한다" 판결

청주 좌씨와 대우 진씨는 서로 친척이라 하여 지금도 서로 혼인 금기!!

호적고: 보전이 되어 있는 것도 실제 호적 아니다

호적고(戶籍庫) : 종루의 서쪽에 있다.
연가(煙家)의 현재 수호는 4,663호(戶)이다. 남자는 노약자를 합하면 9,340명이고 여자는 노약자를 합하면 11,347명이다.
대개 삼읍의 호적을 모아 제주영(濟州永) 안에 두었으나, 제주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함을 알지 못하였다.
관원들이 혹 삼가 보관할 수가 없거나, 목사를 따라온 여러 무리들이 별난 사람[別人]과 노비[藏獲]들의 근본을 찾거나, 사실과 어긋난 것을 그럴 듯하게 기록하여 이미 있었으나 그 유래하는 바를 없애버렸다.
제주사람들이 벼슬을 잘못 산 자는 어그러진 실마리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꺼림칙하게 기록한 곳에는 가져와서 가위로 베어버리거나 혹 찢어서 쪼개거나 혹 도려내어 베거나 혹 지워 고치거나 하였다. 심한 자는 온전하게 끈으로 제본한 두루마리[鐵券]를 훔쳤다.
보존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으나 그 보전이 되어 있는 것도 실제의 호적이 아니다. (후략)

[이원진, 탐라지, 제주목, 창고조, 1653]

등(藤)과 침(葛)과 같아 서로 얽혀 각 파의 구별이 있다 하나, 모두 삼성(三姓)으로부터 근원되었다고 말한다.

고(高) 양(良, 후에 梁으로 고침) 부(夫)가 가장 먼저이고, 그후에 문(文, 寶城의 福城人이 들어와서 고씨의 사위가 되고 고씨를 이어 王子가 되었다)
정(鄭) 김(金) 이(李) 문(文) 안(安) 현(玄) 함(咸) 양(楊)씨는 함께 본주의 현(縣)에 속한다.

김(金) 이(李) 박(朴) 임(林) 유(兪) 주(周) 조(趙) 송(宋) 정(鄭) 홍(洪) 서(徐) 최(崔) 오(吳) 차(車) 지(池) 한(韓) 마(馬)씨는 함께 다른 곳에서 왔고,

조(趙) 이(李) 석(石) 초(肖) 강(姜) 정(鄭) 장(張) 송(宋) 주(周) 진(秦)씨는 함께 원 나라에서 목마(牧馬)할 때 남겨진 종족이다.

양(梁) 안(安) 강(姜) 대(對)씨는 운남(雲南)에 속하는데, 대명(大明)초에 운남을 평정하였을 때 양왕(梁王) 가족들을 옮기어 본주에 안치한 것이다.

이들이 등(藤)과 침(葛)과 같이 서로 얽혀져서 비록 각 파의 구별이 있다 하나 모두 삼성(三姓)으로부터 근원되었다고 말한다.

[이형상, 남한박물, 지성조1704]

탐라 몽골 후예들이 남긴 말발굽,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Der Begriff bezeichne eine Vision einer Gesellschaft, in der Menschen unterschiedlicher Nationalitäten, Sprachen, Religionen und Ethnien friedlich zusammenleben. Menschen verschiedener Kulturen können verschiedene Traditionen, Lebensstile und/oder Vorstellungen von Werten und Ethik haben. Ehemalige Kolonialmächte werden als multikulturelle Gesellschaften besonderer Art bezeichnet: Dort leben oft Menschen aus ehemaligen Kolonien.

Frank Beyersdörfer: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Begriffe, Phänomene, Verhaltensregeln, LIT Verlag Münster, 2004, ISBN 3-8258-7664-0, Seite 49f.

1273년 삼별초가 완전히 진압된 후

- ✓ 몽골 직할지화(추자도 수참 설치, 육지의 제주-> 몽골의 탐라화)
- ✓ 우마사육(방목 기술의 선진화) + 배건조(3천척 이상, 목도질 성행)
- ✓ 다문화 가정의 증가
 - 1백년 경과하면서: 제주인구 1만(최대 3만)을 감안하면...
 - 1백년 동안 몽골인들이 제주 입도 인원(군인+조선공+죄수+목호+귀족; 귀환자 포함)은 적어도 2천명~최대 수천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
- ✓ 원난성/ **키야드 보르지기드** 등 로알웨밀리 집단 이주- 원난성/북방 식문화의 유입 가능성 존재 (구 예래현 반경 10Km)
- ☞ 따라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탐라 문화의 몽골화'=다문화화 진행 (말이 2~3만필 달할 정도로)



그러면, 제주식생활 문화의 몽골화 진행은 얼마나....

2. 연구사례 I : 제주 몽골 식문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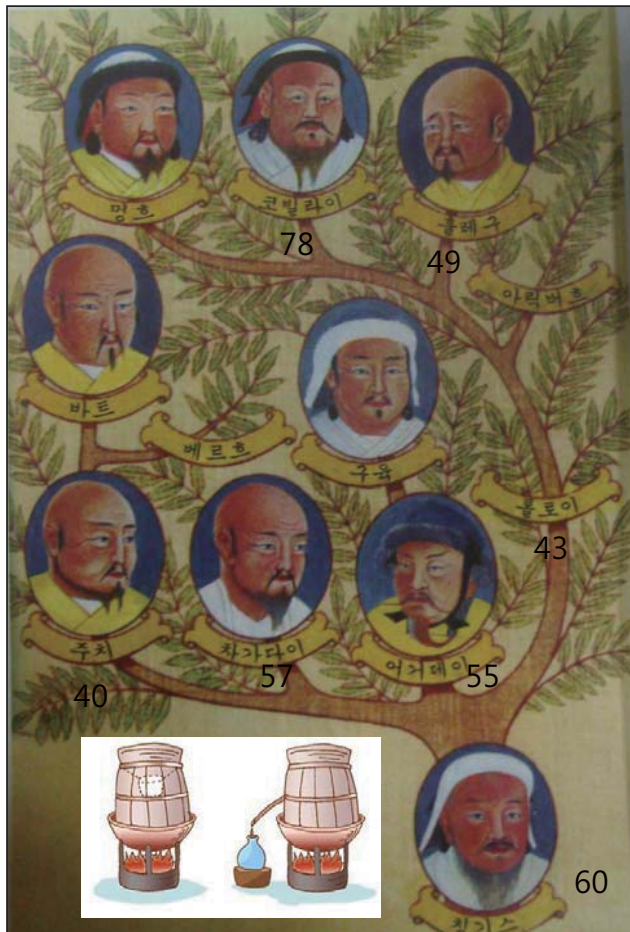
탐라와 몽골의 교류를 통해 생성된 음식①

(추정; 14세기 몽골고원으로 복귀하기 이전의 원나라시대 음식문화)

음식명	제법 및 특징	비교	
		같은 점	다른 점
아르키	-원료: 양, 소, 염소 등의 젖(때로는 아이락을 증류하기도 함) -제법: 탈지 발효유를 증류통에서 증류 -특징: 1차증류-아르키(알콜 5%), 2차-아르츠(알콜 25%), 3차-호르츠(알콜 40%) -음용: 접대주, 제례용, 약용가향주 (약용동식물 침출주, 민간요법)	-증류기 이용 증류 -음용 목적 동일	-원료 다름
고소리술	-원료: 곡물(조, 보리, 수수) -제법: 탁주를 고소리에 증류 -특징: 1차증류(알콜 30%) -음용: 일용주, 접대주, 제례용, 약용 가향주 (약용 동식물 침출주, 민간요법)	-알콜도수 조절 위해 재증류	



<고소리술의 '닭기'(증류)>



"Dietary Decadence and Dynastic Decline in the Mongol Empire," by John Masson Smith, Jr., *Journal of Asian History*, vol. 34, no. 1, 2000.

Heavy drinking, in turn, often led to alcoholism.

General if less conspicuous overindulgence may also account for a decline in dynastic longevity. Chinggis and two of his sons lived reasonably long lives for the thirteenth century: Chinggis for at least 60 years (perhaps having acquired a taste for vegetables after having to eat them as a child), Chaghatai for some 57 years, and Ogödei, despite his drinking, for 55 years. Tolui, however, died at only about 42.⁵⁶ Of Tolui's principal sons who died of natural causes (Mongke fell fatally ill on campaign, and Ariq Boke conveniently died in awkward political circumstances), Qubilai, as mentioned, lived for 78 years, but Hulegu, founder of the ruling Middle Eastern lineage, died at 48.⁵⁷ Most subsequent Middle Eastern rulers did not even approach Hulegu's unremarkable standard. Abaqa also died at 48.⁵⁸ Hulegu's third successor, Arghun, apparently already concerned about poor health when only in his early thirties, began to take a longevity-medicine made of sulfur and mercury -- and soon died^{59/} Ghazan lived to only 32, Oljeitu to 35, and Abu Sa'id, the last real Middle Eastern sovereign, to 30.⁶ The successors of Qubilai likewise declined rapidly in lifespan. Timur died at age 42, Qaishan at 31, Ayurbarwada Buyantu at 35, Yestün Timur at 35, Tugh Timur at 28, Irinjibai Qutuqtu at 7, and Toghon Timur at about 50.⁶¹

阿剌吉酒(음선정요, 1314-1320年)

味甘辣, 大热, 有大毒. 主消冷坚积, 去寒气. 用好酒蒸熬, 取露成阿剌吉.

몽골족이 들어온 탐라 고소리술 민속

고소리술을 ‘닭다’ (증류하다)



而稻絕少 土豪質陸地而食 力不足者 食田穀 所以清酒絕貴 冬夏 勿論用燒酒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조선 중종 김정, 1520)

몽골족이 들어온 탐라 고소리술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 제주에 (조가 많이 생산되며) 소주를 많이 빚음, 봄과 가을에 광양당(廣壤堂)과 차귀당(庶歸堂)에 남녀가 무리를 지어 술과 고기를 갖추어 신에게 제사를 지냄

濟州俗每於春節男女羣聚廣壤堂遮歸
堂具酒肉祭神又地多蛇虺蜈蚣若見灰色
蛇則以爲遮歸之神禁不殺秋亦如之

동aimag



1602년

남사록 (南木差錄, 淸陰 金尙憲) - 벼는 매우 적어 이 때문에 청주가 매우 귀하다 (稻絕少: 是而淸酒絕貴也)

1653년

탐라지 (耽羅誌, 太湖 李元鎮) - 소주를 많이 마심: 풍토록에 나락은 지극히 적어서 부자는 육지에서 사들여 양식을 하나 가난한 사람들은 발 곡식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청주가 귀한 까닭이다 (多用燒酒: 風土錄稻節少 土豪 質陸地 而食 力不足者 食田穀 所以 淸酒節貴)





탐라와 몽골의 교류를 통해 생성된 음식②

(추정; 14세기 몽골고원으로 복귀하기 이전의 원나라시대 음식문화)

음식명	제법 및 특징	비교	
		같은 점	다른 점
아이락	-원료: 말짖 -제법: 말짖+스타터-> 각반-> 1~2일 젖산발효 -특징: 자연 젖산균 사용, 알콜함량 1~2%, 정장작용 강화 -음용: 여름음료 및 기본식량(섭취량 0.5~1.5L/일)	-저알콜 젖산 발효 음료	-원료 다름
순다리 Shuntari	-원료: 식은 보리밥 -제법: 보리밥+누룩+물-> 1~2일 젖산발효 -특징: 알콜함량 1% 내외, 정장작용 강화 -음용: 여름철 청량음료 (곡물 요구르트)	-여름철 청량음료	-종균(누룩, 밀술)의 차이



제주 순다리 제조와 음용



Highland barley wine (also called Chiang in Tibet)

아이락, 타라크(tarag, 요구르트) ≡ 순다리 제주에만 있고 육지에는 없다



아이락



타라크(몽골 요구르트)



제주
순다리(스+타락)

탐라와 몽골의 교류를 통해 생성된 음식③

(추정; 14세기 몽골고원으로 복귀하기 이전의 원나라시대 음식문화)

음식	제법 및 특징	비교	
		같은 점	다른 점
참과/ Arvain guril	-원료: 볶은 보리가루, 액체버터, 물 -제법: 사발에 보리가루와 액체버터를 넣은 다음, 더운물을 부어 덩어리로 반죽한 것 -특징: 유목민들이 휴대하면서 먹는 음식.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먹음	-볶은 보리가루를 물에 타서 반고체 상태로 먹기(목장일, 밭일, 바닷일 등 휴대음식)	-버터차를 더 첨가하기
개역	-원료: 볶은 보리가루, 냉수 -제법: 사발에 보리가루와 물을 혼합하여 액상, 반고체, 보리밥에 비벼먹기 -제주도의 여름철 간식		





제주개역



티벳/몽골참파

탐라와 몽골의 교류를 통해 생성된 음식④

(추정; 14세기 몽골고원으로 복귀하기 이전의 원나라시대 음식문화)

음식	제법 및 특징	비교	
		같은 점	다른 점
오츠	-조리법: 삶는 요리 (분육한 고기를 통에다 넣고 삶아냄) -식사법: 통째로 내어 칼로 잘라가면서 먹음 (칼의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 이동)	-굽는 요리가 적고 삶는 요리가 주 -칼의 절단 방향이 동일 (도감의 칼질방향) -무향신료 육식용문화	- 손 칼 을 사용하여 먹음
돔베 괴기	-조리법: 삶는 요리 -식사법: 도마위에서 자른 후 나눠 잘라먹음 (칼의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 이동)		



양고기 오츠



제주 돔베고기

추 럽 문 화(communsalism)⑤



Khorkhog(허르헝)



Boodog(보도크) made from a marmot

탐라와 몽골의 교류를 통해 생성된 음식⑥

(추정: 14세기 몽골고원으로 복귀하기 이전의 원나라시대 음식문화)

음식명	제법 및 특징	비교	
		같은 점	다른 점
보르츠(Borts)	-원료: 오축(양, 소, 염소, 말, 낙타) 중 양고기를 많이 사용 -제법: 고기를 겉대로 잘라서 겉에서 건조한 것. 또는 건조육을 절구에 찧거나 망치로 두들겨 분말화 시킨 건조분쇄육), 날고기를 겉 안에 걸어두면 실내 유산균에 의해서 자연발효가 되어 발효 육이 됨. 육 내부는 선홍색으로 풍미도 좋고, 상온 저장가능 -특징: 저장용 음식(몽골군 휴대식량), 건조 소위나 방광에 분말을 넣고 휴대(인스턴트 수프). -먹는법: 육포상태로 먹거나 분말은 국물요리에 사용(또는 제주도 개역처럼 온수 한 공기에 육포가루 2~3수저를 넣고 불려서 먹음)	-고기의 저장 및 이동을 위한 목적 -제주에서는 돼지 발 톱을 말려 보관해 두었다가 가루로 내어 죽을 쑤어 먹거나 탕으로 끓여 먹음	-몽골은 그대로 말리는 소건법(素乾法) -제주도는 소금간을 하여 말린 것(鹽乾法); 소금과 술에 절여 말린 것으로 추정 -제주도 육포가루 존재 알려지지 않음
말고기육포	-원료: 말고기(또는 소, 돼지, 꿩, 노루 등도 사용) -제법: (양념한) 말고기를 얇게 저미어서 말린 포 -특징: 진상음식(선달에 알말을 잡아 육포로 만들어 진상 태조 4년(1395) 제주에서 해마다 바치는 마른 말고기를 중지함) -먹는법: 제주도에서는 거의 먹지 않고 진상용으로 사용		

보르츠(Borts) vs. 제주 말고기 육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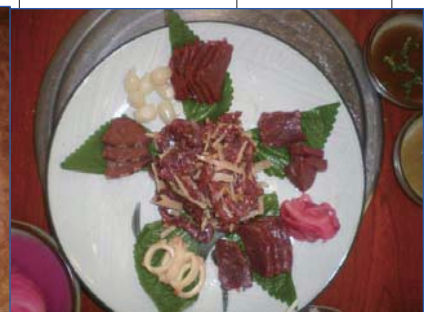
몽골에서는 매년 가을 소를 잡아 뼈를 발라낸 뒤 고기를 세로로 길게 자른다. 이 고기를 3~4개월 이상 건조한 창고 등에서 바삭 말린 뒤 가루로 빻은 것이 '보르츠'이다. 소 방광 하나에 소 한마리 분량의 고기가루가 다 들어가며 무게는 3~4 Kg에 불과하다. 몽골군은 병사 한 명이 보르츠를 가득넣은 소 방광을 두 개씩 휴대해 다니다가 더운물에 조금씩 풀어 마시는 것으로 식사를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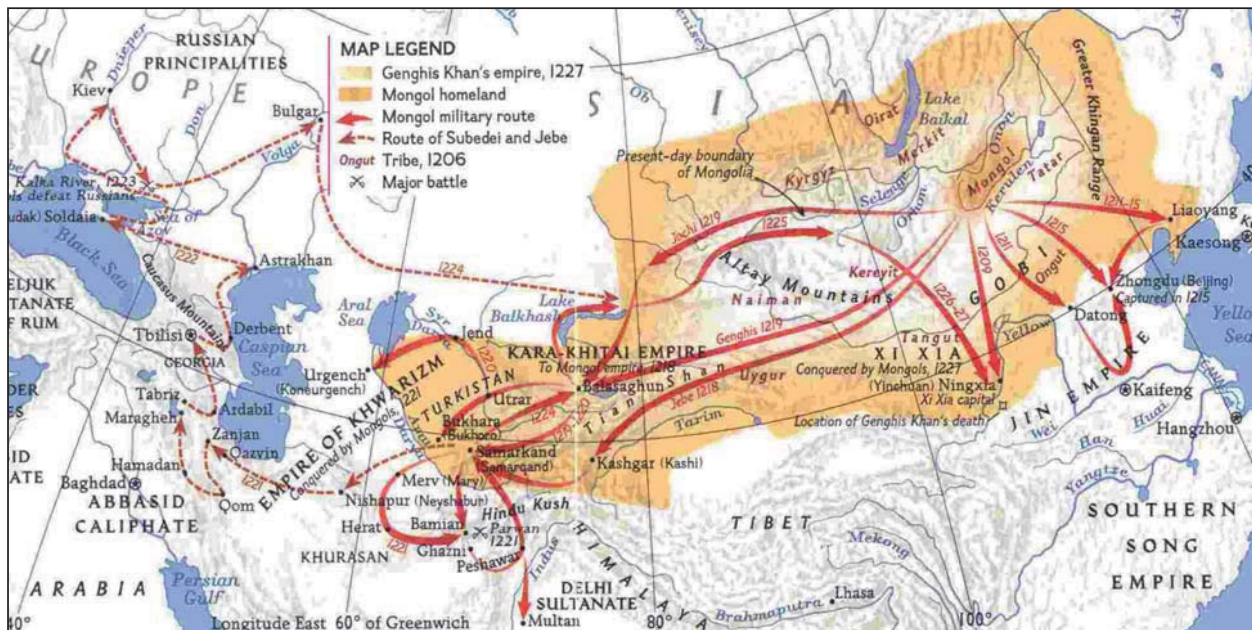


탐라와 몽골의 교류를 통해 생성된 음식⑦

(추정: 14세기 몽골고원으로 복귀하기 이전의 원나라시대 음식문화)

음식명	제법 및 특징	비교	
		같은 점	다른 점
타타르	-원료: 말고기(또는 쇠고기) -제법: 숙성된 말고기를 채 썰어 다진 것 -내력: 몽골인들이 원정 중 식용말의 밀부를 떼어내어 말안장 밑에 넣고 숙성시킨 다음, 생회로 만들어 먹었던 군사식량. ※ 몽골군이 점령한 유럽을 근거지로 독일·프랑스·이태리 등에 '타타르 스테이크'라는 명칭으로 널리 퍼져있음	-몽골에서는 라마불교가 전파되면서 생식하는 습관이 없어졌으나, 13세기 제주에 전해진 몽골음식(군사식량)이 토착화되어 현존하는 몽골음식	-썰어서 먹는 방법이 다름
말고기육포	-원료: 말고기(또는 쇠고기) -제법: 숙성된 말고기를 결의 반대방향으로 채 썰어 양념한 것 -내력: 13세기말 제주에 이주해온 몽골인들이 먹었던 음식. ※ 제주에서는 채로 썰어먹기보다는 도마에서 부드러운		





구릴타이술 vs. 제주 고기국수 (칼국)

메밀칼국

고기국수

탐라와 몽골의 교류를 통해 생성된 음식^⑪

(추정; 14세기 몽골고원으로 복귀하기 이전의 원나라시대 음식문화)

음식명	제법 및 특징	비교	
		같은 점	다른 점
호쇼르	-원료: 양고기, 양기름, 밀가루, 소금 -제법: 잘게 썬 양고기를 양기름에 볶아 익히고, 밀가루반죽으로 호떡크기의 만두피를 만든 다음 거기에 만두소를 넣어 만두를 빚어 양기름에 튀긴 것 -특징: 숭늉 모양의 큰 튀김만두 일종	-만두 크기의 유사성 -다른 음식에 비해 상호 유사성이 적은 것은 지역 산물의 차이에 기인한 것	-몽골은 소로 동물성 육류를 사용하고, 제주에는 식물성소를 넣음 -몽골은 양기름에 튀기고, 제주는 삶은 것
물떡 (만두)	-원료: 메밀가루, 소(팥, 콩나물 또는 무채) -제법: 익반죽한 메밀반죽을 호떡크기로 떼어내어 가늘게 소를 넣고 반달모양으로 접어 봉한 후 끓는 물에 삶아낸 것 -특징: 호떡 크기의 대형 삶은 만두. 상례 시 중산간 장지에서 식사대용으로 일꾼들에게 나누어준 삶은 떡의 일종. 13세기 원나라의 식문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		



탐라와 몽골의 교류를 통해 생성된 음식^⑫

(추정; 14세기 몽골고원으로 복귀하기 이전의 원나라시대 음식문화)

음식명	제법 및 특징	비교	
		같은 점	다른 점
게데스, 츠스	-원료: 창자, 피, 메밀, 야생부추, 소금 -제법: 창자를 뒤집어 씻은 다음, 소(피, 메밀가루, 야생부추, 소금의 혼합물)를 채워 고기를 삶을 때 함께 넣어 익힌 것 -특징: 창자에 가축의 혈액을 넣은 것을 게데스, 창자에 소(피, 메밀가루, 야생부추, 소금의 혼합물)를 넣은 것을 츠스라고 함. 여성의 전유 작업	-창자에 선지(혈액)를 채워 넣어 삶아 먹는 법(습열조리법) -육지부 순대의 충전물과 다르나, 몽골과 제주 순대의 내용물 중 메밀가루와 부추를 넣는 점이 같음	-몽골에서는 주로 양창자와 양피, 제주에서는 돼지창자와 돈혈을 사용 -게데스는 창자와 선지만을 사용
수애	-원료: 창자, 피, 메밀, 야생부추, 소금 -제법: 창자를 뒤집어 씻은 다음, 소(피, 메밀가루, 세우리, 소금의 혼합물)를 채워 고기를 삶을 때 함께 넣어 익힌 것 -특징: 주로 돼지창자와 피를 주재료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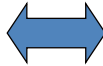
Mongol: 羊, 山羊 gedes
肉Mongol: 豚血腸(野菜 香辛料)



탐라와 몽골의 교류를 통해 생성된 음식⑬

(추정; 14세기 몽골고원으로 복귀하기 이전의 원나라시대 음식문화)

음식명	제법 및 특징	비교	
		같은 점	다른 점
랍샤	-원료: 옥수, 고기, 곡물, 소금 -제법: 끓는 옥수에 잘게 썬 고기와 낱알 곡물을 넣어 끓인 죽 -특징: 고기국물을 사용	-고기국물을 내어 사용하는 경우	-낱알 곡식이 다름
고기죽	-원료: 고기, 낱알 곡물 -제법: 낱알 곡물(좁쌀 또는 산디쌀)과 다진 고기를 넣어 끓인 죽 -특징: 제주도에는 말고기죽, 쇠고기죽, 돼지불알죽, 돼지새끼죽 등이 있음. 은 국물에 죽을 쑈기도 함	-다진 고기를 사용	-몽골에서는 고기 옥수를 주로 사용



탐라와 몽골의 교류를 통해 생성된 음식⑭

(추정; 14세기 몽골고원으로 복귀하기 이전의 원나라시대 음식문화)

음식명	제법 및 특징	비교	
		같은 점	다른 점
술루	-원료: 고기(오축)를 통째로 삶아 낸 국물 -특징: 고기를 삶아서 백숙의 형태로 먹고, 국물은 2차 탕요리에 사용. 설령탕의 '설령'의 어원을 '술루'라고도 함. 제주도 속담 '관덕정 설탕국도 먹어난 놈이 먹나' ('설탕' = '술루탕')	-고기국물을 2차 탕요리에 사용	-몽골은 고기를 수프의 형태로 많이 먹고 (메밀가루를 푼 말고기국 처럼), 제주에서는 채소(무, 배추, 해초)를 넣고 가볍게 끓인 고기국 형태로 많이 먹음(말고기국, 돛괴기국, 접짝배국, 쇠고기국)
괴기국	-원료: 돼지고기를 통째로 삶아 낸 국물 -특징: 2차요리로 모자반()이나 무청(또는 배추)를 넣고 끓인 국. 경조사 시 손님 접대음식으로 사용(공동식문화, 군대 단체급식문화)	-공동식 요리에 사용	



탐라와 몽골의 교류를 통해 생성된 음식⑬

(추정; 14세기 몽골고원으로 복귀하기 이전의 원나라시대 음식문화)

음식명	제법 및 특징	비교	
		같은 점	다른 점
만토	-중국식 만두와 마찬가지로 소를 넣지 않고 반죽한 밀가루만으로 모양을 내서 찐 것	-<음식지미방(1670년경)>에는 상화는 밀가루를 부풀려 채소로 만든 소와 팔소를 넣고 찐 것이라고 함	-제주에서는 주로 보리/밀가루, 본토에서는 밀가루를 사용
상애펍	-원료: 보리쌀, 보리술, 팔, 소금 -제법: 보리가루에 탁주를 부어 혼합하고 소를 넣어 발효시킨 반죽을 성형하여 찐낸 식사대용의 찌뽕. -특징: 원나라시대 전래 된 것으로 추정. 쌍화->상화->상애펍(상외)로 명칭이 유래된 것으로 추정	-고려가요에 쌍화점(雙花店)에서 상화(霜花)가 판매되었는데, "쌍화점에 쌍화 사라 가고신단/회회아비(회회죽) 내 손모글 주여이다."라는 내용이 있음.	



‘Hamel, 상애펍 배급을 받다

1653년 8월 18일 아침

In the beginning of the month of May, the coxswain, who was on leave with five other companions (among them three of the previous attempt), saw in a village not far from the city a ship with all the necessities on board.

Immediately they sent a man back home to fetch **two pieces of bread** for each and a plaiting (a piece of rope which is twined in a flat way).

그들은 즉시 한 사람을 숙소로 보내 각자에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해 둔) **빵 두 조각**과 끈 밧줄을 가져오게 하였다.



몽골인의 전해준 유제품의 행방 ⑮

오축: 말, (소) 양, 나귀, 낙타
 젖소?/흑우?

✓ 충렬왕 정유 23년(1297):
 11월 무인일에 상장군
 김연수를 원나라에 보내
 인삼(人蔘) 및 탐라의 수
 유(酥油)를 헌납하였다
 (고려사 제31권).

世子諱夙成幹局入衛闕庭荷恩已配於皇
 支諸事堪承於宗祀而臣將俾之嗣位退以
 攝生庶免憂勤釋千鈞之重擔小延喘息觀
 四海之大平茲切願呼佇垂矜察 乙巳太
 白晝見經天 十一月戊寅遣上將軍金延
 壽如元獻人參及耽羅酥油 已丑宥二罪
 以下十二月戊戌以內監金元臣私通宮
 人柴巨並投臨津 庚子闕闕多大王死守
 大青島 壬寅以金之淑為食議參理世保
 貳師安珣為食議參理世子貳保崔有濟判
 密直司事李混知密直司事並兼世子元賓
 尹為密直學士張碩為軍簿判書全昇為
 右副承旨吳仁永為左承旨金恂為左副承
 旨趙瑞為右承旨吳漢卿李瑱為左右司議
 大夫 甲辰僉議參理張齊龍死 戊午遣
 大將軍宋瑒如元賀正閏月行省遣據趙珍
 賀正 乙丑以元珣同知密直司事元卿副
 知密直司事 副知密直司事崔冲紹以世



Öröm
(우름)



몽골인의 전해준 유제품의 행방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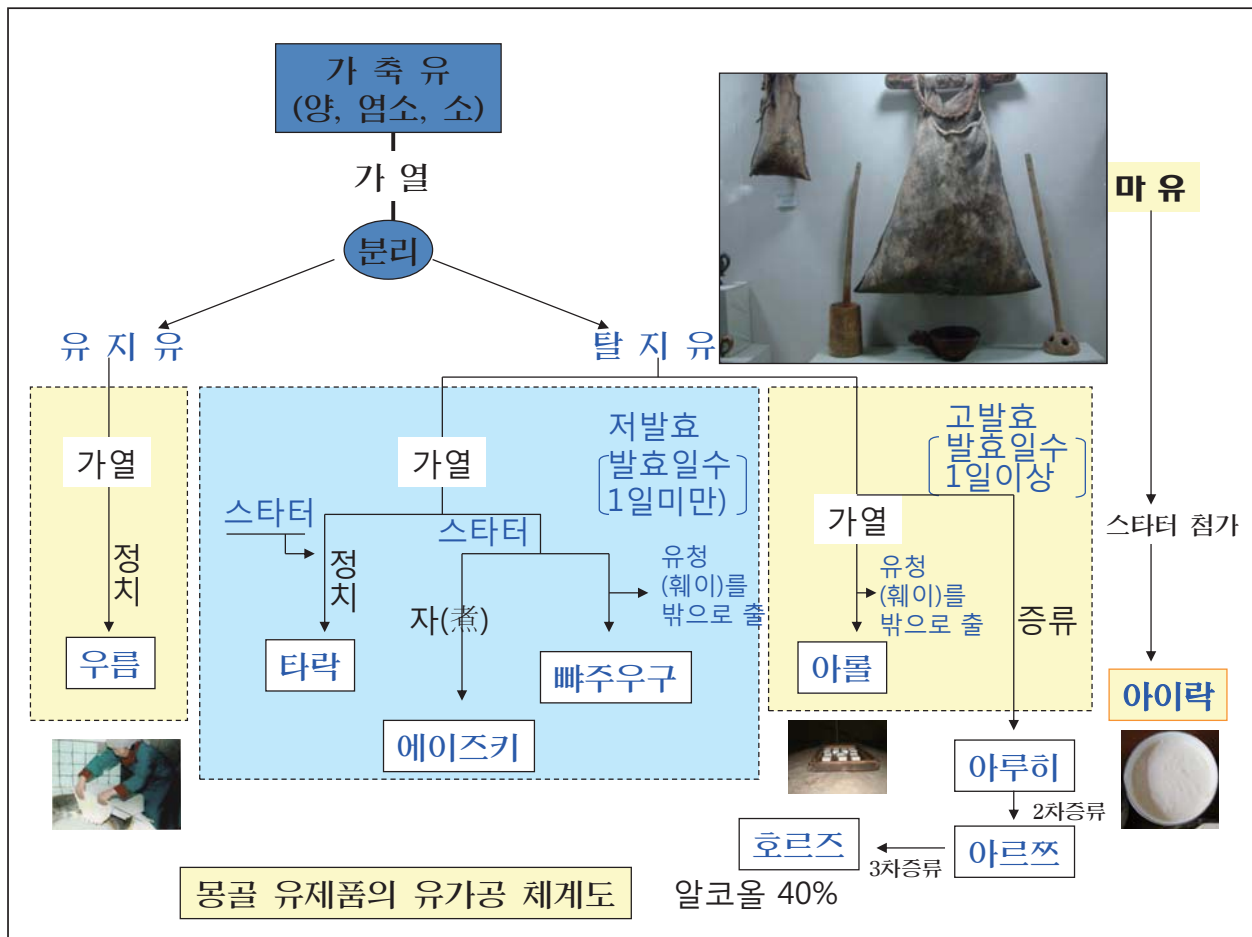
그러나 탐라목장에서 생산된 유제품에 대한 조선시대의 기록은 왜 존재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제품은 왜 전승되지 않았을까?

- ✓ 충렬왕 정유 23년(1297): 11월 무인일에 상장군 김연수를 원나라에 보
 내 인삼 및 탐라의 수유(酥油)를 헌납하였다
 (十一月 戊寅 遣上將軍金延壽如元獻人參及耽羅酥油; 고려사 제31권).
- ✓ 충혜왕 임신 2년(1332): 8월 신묘일에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탐라
 의 수유(酥油)를 요구하였다
 (八月 辛卯 元遣使索耽羅酥油; 고려사 제36권).
- ✓ 충정왕 기축 원년(1349): 8월 계묘일에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제주
 도의 수유를 요구하였다
 (癸卯 元遣使求酥油于濟州; 고려사 제37권).



Öröm
(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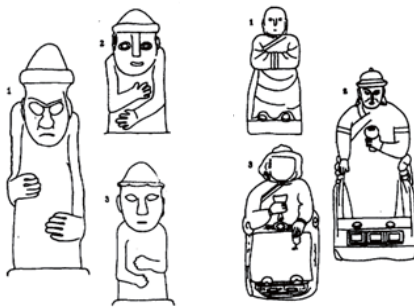


요리방법; 지방(고체)문화인가 식용유(액체) 문화인가? ①9

몽골풍脂文化圈 = 제주 (豚)脂文化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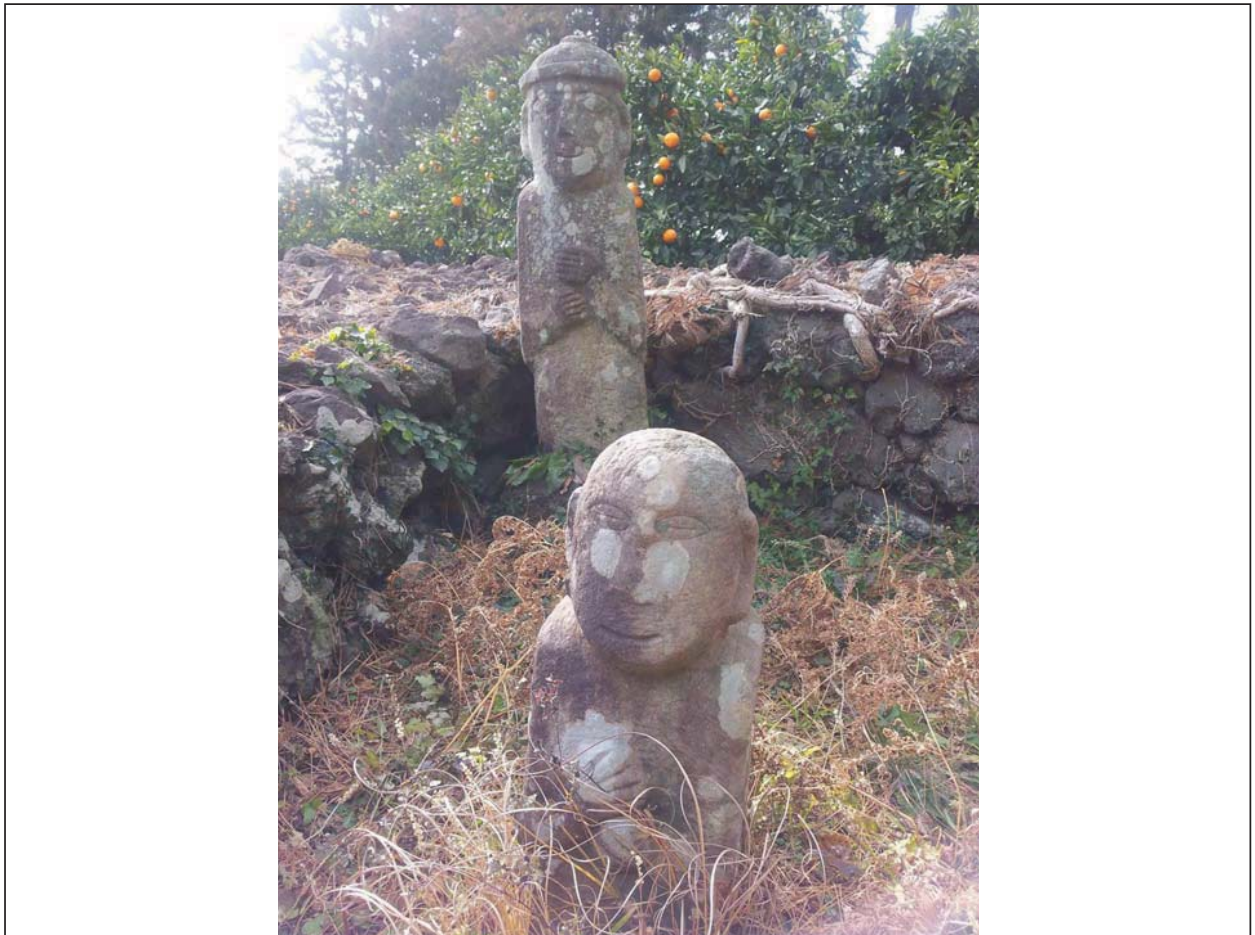


연구사례 Ⅱ : 석인상 비교



영주도(서울역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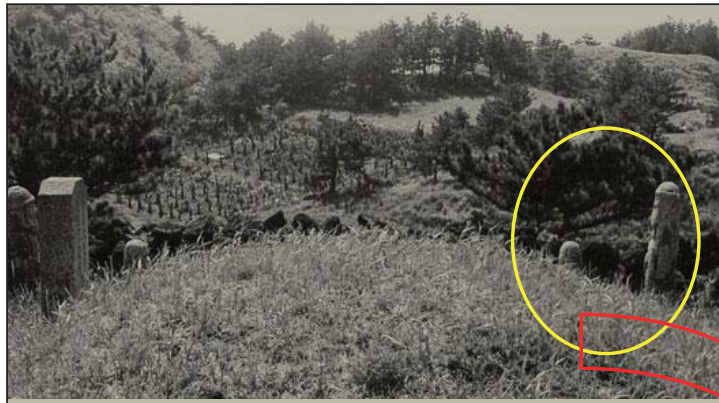






梁基錫
(1829~1904)

소재지: 대정읍 무릉2리
직위: '유향좌수 향교훈장'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앞골'



화순리 역대 이장 50%가 양씨

~1980년대
약50%

양
씨
가
문

	성명	대수	성명	대수	성명	대수	성명
1	양운교	16	박세형	31	고두찬	46	박명준
2	김석권	17	이응매	32	양성표	47	양영석
3	강사중	18	강문봉	33	현상흥	48	성경부
4	양은교	19	성병규	34	양성훈	49	박성지
5	양기호	20	양승교	35	지성권	50	이영두
6	양응규	21	양행규	36	양하건	51	진경구
7	박기휴	22	지봉일	37	지명흥	52	박순영
8	양달익	23	양문일	38	양상호	53	이재근
9	양태교	24	지덕룡	39	박철훈	54	지태호
10	강재운	25	성대년	40	고원택	55	이자신
11	지한희	26	양문하	41	이봉일	56	성경관
12	양용해	27	강자흥	42	양동하	57	지경호
13	양형교	28	강태훈	43	성덕훈		
14	양유생	29	양규석	44	고품호		
15	박자춘	30	박창식	45	지덕삼		



양왕자터

- 위치 : 和順里 333번지 사거리 일대



대정현 돌하루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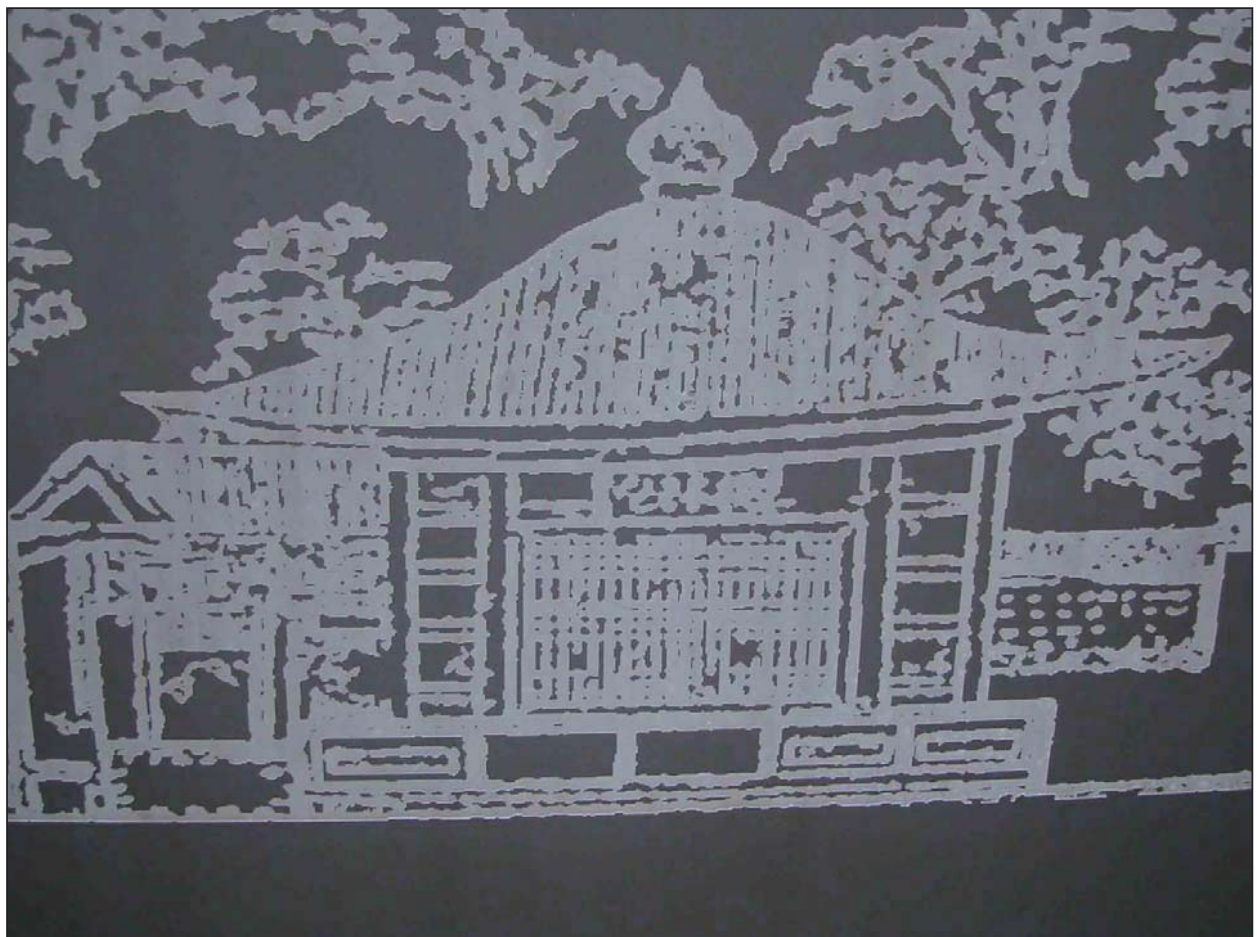
목관아지-돌하루방

- Owner









삼성혈-돌하루방

- Owner





박물관-시청-돌하루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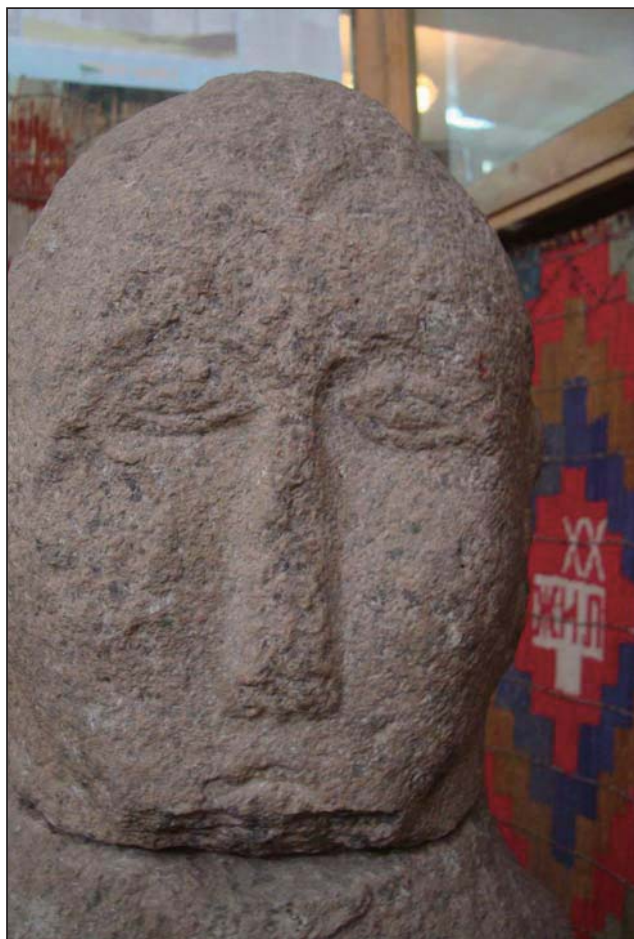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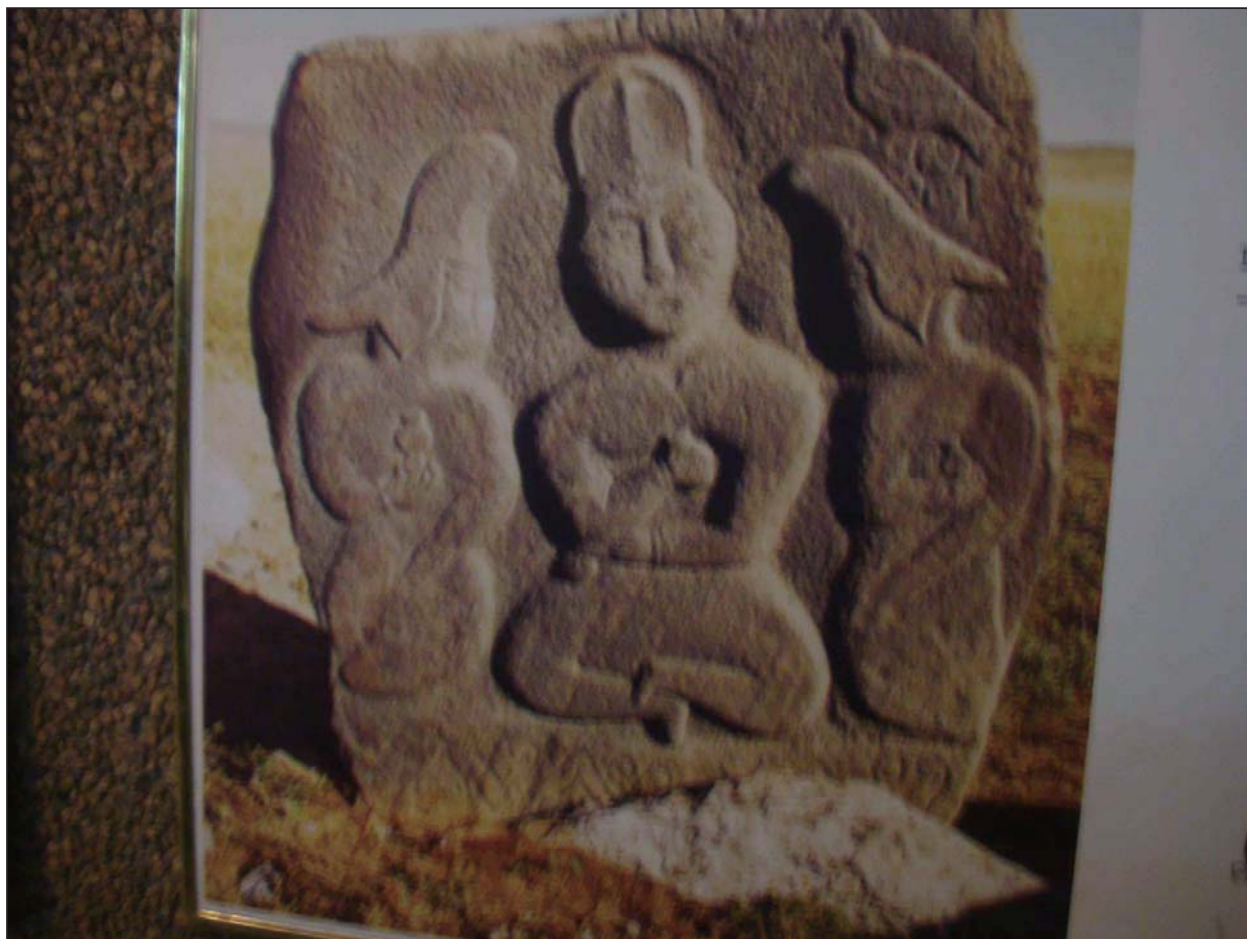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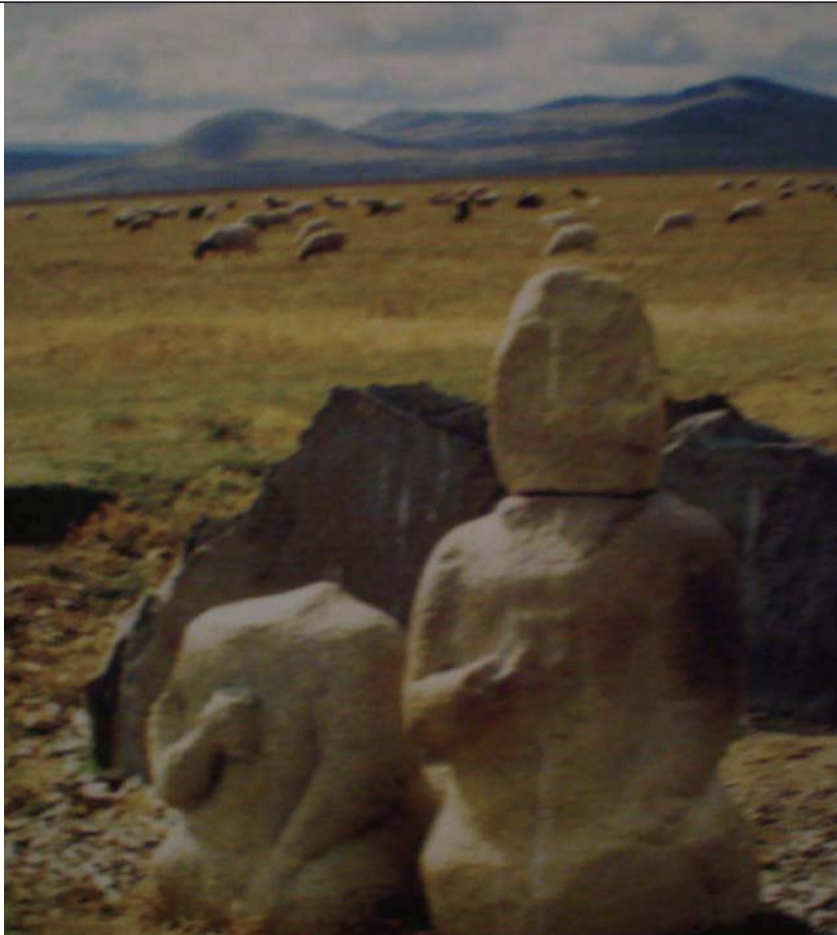


몽골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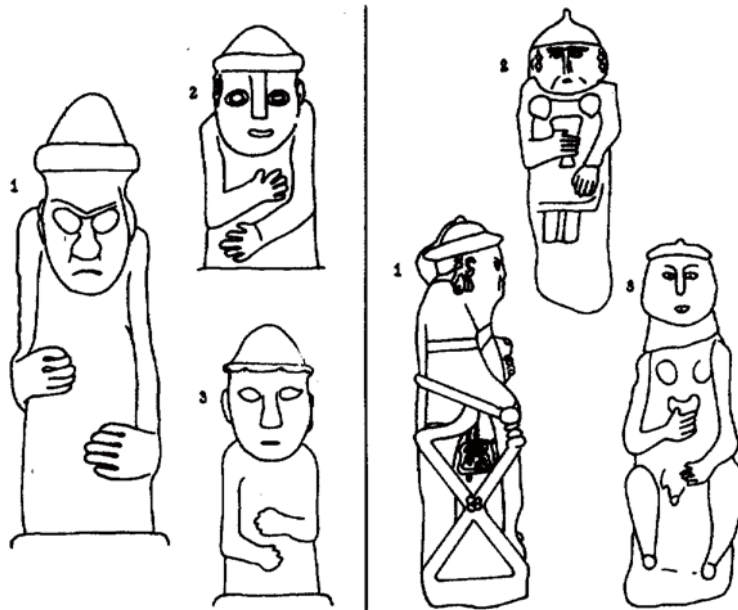
- Owner







제주돌하르방동몽골 vs. 다리강가 훈출로



데바이에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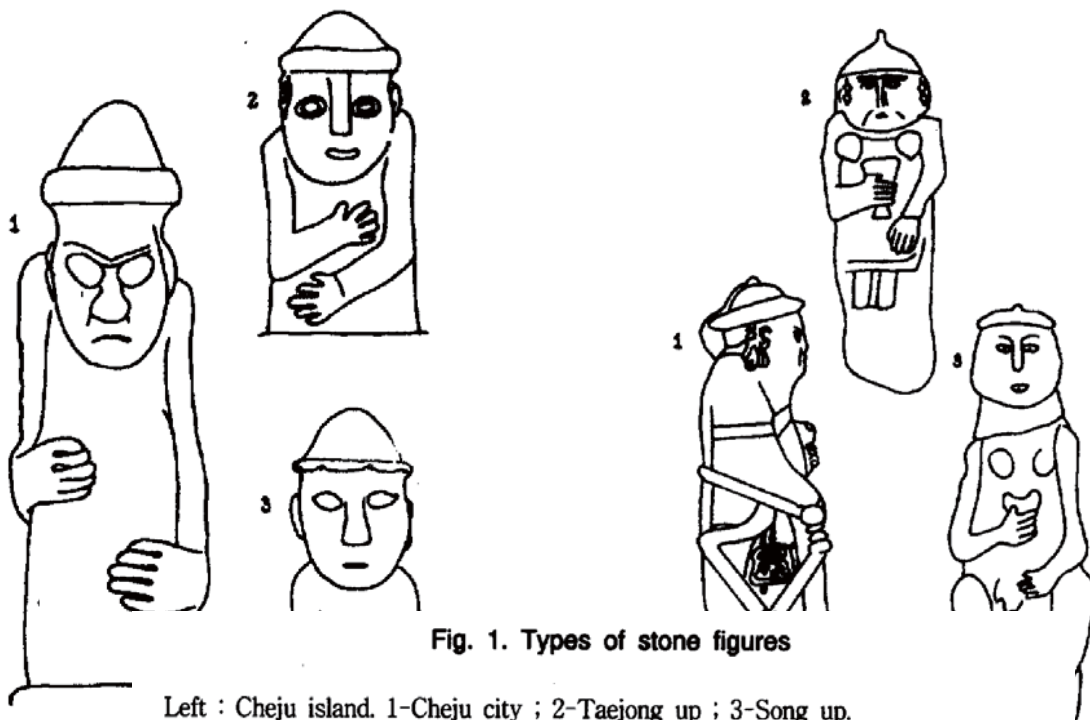


Fig. 1. Types of stone figures

Left : Cheju island. 1-Cheju city ; 2-Taejong up ; 3-Song up.

Right : Eastern Mongolia. 1-Dornod aimak, Khalkha gol somon, Shonkh tavan tolgoi ; 2-Sukhbaatar aimak, Erdenichagaan somon, Senj mandal; 3-Sukhbaatar aimak, Dariganga somon, churugiin chundii.

데 바이에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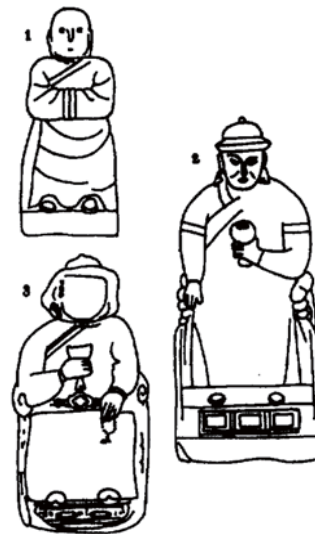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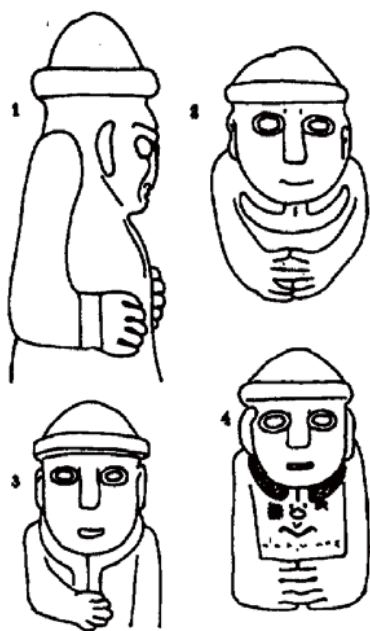


Fig. 3. Detail of clothes

Left : Cheju island. 1-Cheju city ; 2, 3, 4-Taejong up.

Right : Eastern Mongolia. 1-Sukhbaatar aimak, Erdenichagaan somon, Dugnariin davaa ; 2-Dornod aimak, Khalkha gol somon, Shonkh tavan tolgoi ; 3-Sukhbaatar aimak, Ongon Somon, Shiv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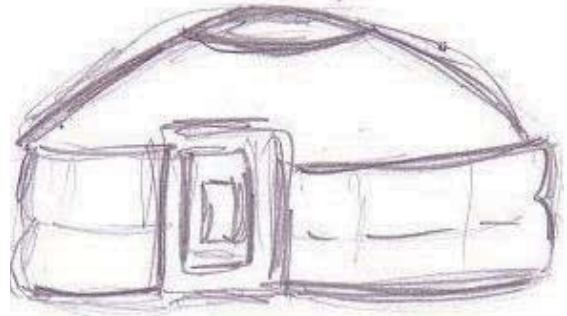
연구사례 Ⅲ : 기타 생활문화의 비교



왜, 제주에는 몽골 게르(주방의 흔적)가 없을까?

게르=몽골인=게르, 게르가 없는 몽골인은 생각할 수 없다

- 북방초원 이동성 유목생활 -> 제주 정주형 방목생활로 생태적, 지리적 생활환경이 변했다
- 일년 내내 화로에 불을 남겨둘 필요가 없어졌다 (여름에는 너무 덥다)
- 조립과 해체가 필요 없어졌다
- 양의 방목 부적응으로 재료가 없었다
(양털로 만든 펠트)



제주에 정착한 몽골족 목호의 주거문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위해
문화변용의 과정을 거친 흔적은 없을까?

제주와 몽골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주방(?) ②⑩

(추정; 14세기 몽골고원으로 복귀하기 이전의 원나라시대 음식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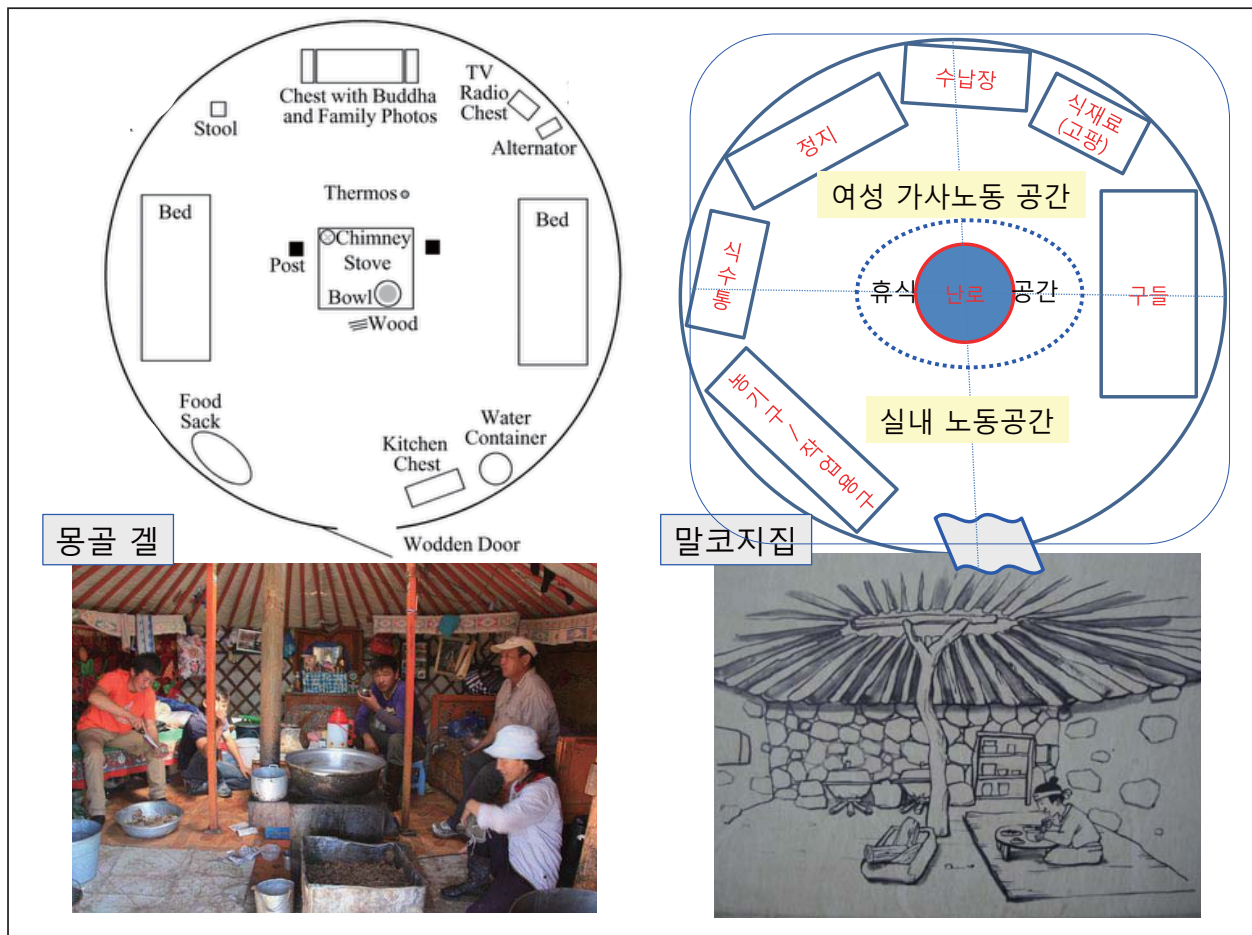
-제주 '말코지집'/사냥꾼의 집
(1950년대까지 중산간 부락 존재)

제주도 '말코지집' VS. 몽골 게르

- 유사 점: 복합기능+단일기능, 중앙 난로, 외문
- 다른 점: 이동형 vs. 고정형(임시 방편)
천정 개폐식공간 vs. 측면 통풍식
- 문화(모름): 여성 vs. 남성, 연장 vs. 연하자



- 벽: 원형/사각형의 돌담집
- 지붕: 외기둥+상모루+서까래
- 공간 4요소: 정지(주방)+상방(봉덕)+방(주거)+고팡
- 정지: 취사준비, 밥상준비, 식사공간, 노동공간, 접객
- 측면 창공: 채광, 환기, 통풍, 배연
- 바닥: 마른 새, 보리짚, 조짚, 명석/돛자리





'지들커'-말뚝연료 ②①

-유사점 : 난방연료(굴묵 vs. 취사 및 난방)



몽골인에게 익힌 말고기 식용습관 ②5

병오일에 왕이 태자의 숙소에 가서 방물 연(防沒宴)을 베풀었다. 원나라 법으로 연회 날 큰 고기 마두(肉馬頭)를 남겨 두었다가 이튿날 다시 연회를 하는 것을 방물(防沒)이라 하였다

丙午 幸太子館設防沒宴 元法留宴日大肉馬頭翌日復宴謂之防沒
(고려사 제38권; 공민왕 기사 2년, 1353년)

신돈의 성품이 사냥개를 무서워하며 활 쏘고 사냥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또 호색 음탕해서 일상 검정 닭과 흰 말을 잡아 먹고 양기(陽氣)를 돋우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신돈은 늙은 여우의 요정(妖精)이라 하였다

鈍性畏畋犬惡射獵且縱淫常殺烏雞白馬以助陽道時人謂鈍爲老狐精
(고려사 제132권).

제주도의 말고기 시련... 말고기를 먹은자 650명을 평안도로 강제이주 시키다

도승지 안송선이 영의정 황희의 말을 아뢰기를, “이제 제주에서 평안도로 옮길 우마(牛馬)를 도살(盜殺)한 자가 6백 50명에 이르고

都承旨安崇善, 以領議政黃喜言啓曰:
“今自濟州移置平安道盜殺牛馬者, 幾至六百五十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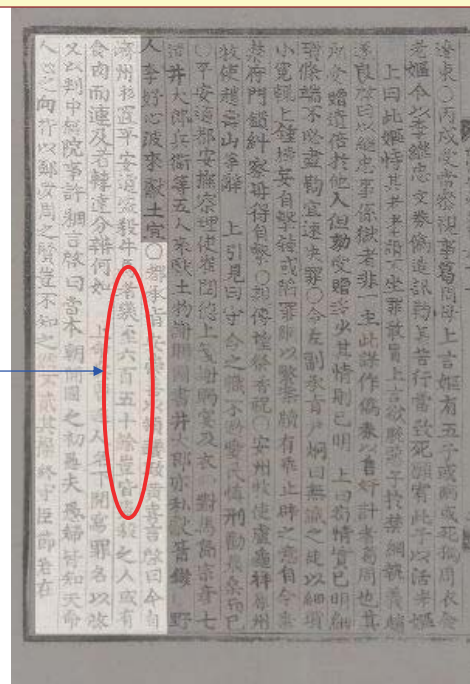
세종 67권, 17년(1435년 을묘)

-전략- 내가 듣기에는 말도독이 거의 천 명에 달한다 하나, 이는 다름이 아니라, 본주의 사람들이 그 토풍(土風)에 젖어서 자기의 우마를 잡아 제사하고 그 고기를 먹은 자까지도 모두 색출에 걸렸다는데,

“물게기 숨는 된 가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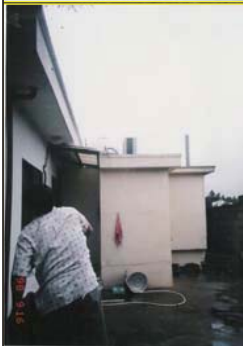
“말고기를 먹으면 과월 난산한다”

시기적으로 이 집단에 속하지 않지만 세종 17년(1435) 우마적으로 색출되어 강제 추방당하기 전 제주 본토인 또는 제주에 정착했던 몽골인들이 제주에서 수유를 만들어왔었고, 그 후 평안도로 추방당한 후에도 계속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 수유를 만들었던 대단위 집단이 타지로 이주 당함으로써 제주에서 점차적으로 수유제조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걸멩'과 몽골 제례의식

27



몽골 '우르굴 차찰' v s. 제주 '코시'

27

▷ 몽골 살찰례(薩察禮)

- 살찰례는 몽골족의 음식문화 중의 하나
(음식을 먹기 전에 손가락으로 하늘, 땅, 조상신에게 예를 바침)
- 푸른하늘(敬獻蒼天)-> 대지(敬獻大地)->선조(敬獻祖先)의 순으로 바침
- 술을 마실 때: 오른손 무명지를 술잔에 적혀 천지를 향하여 삼차 흠뿌림
- 고기를 먹을 때: 고기 3 덩이를 잘라 하늘을 향하여 던짐
- 차를 마실 때: 차찰을 젖에 담갔다가 하늘에다 세 차례 흠뿌림

▷ 테우리 코시: 백중날 목동들이 방목장에서 마소의 무병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

- 칠월 보름 '테우리'(목동)들이 떡과 밥, 술 등 제물을 가지고 자기 소와 말을 돌보는 테우리 동산으로 가서 차려간 제물을 케우리며(고수레) 그 해 목축이 잘 되기를 기원.
- 제의 중에 목자들은 소나 말을 가꾸는 언덕 이름을 하나하나씩 언급. "천왕테우리도 먹여 감사, 지왕테우리도 먹여 감사, 인왕테우리도 먹여 감사"하면서 언덕 이름 입에 오르내림.

✓ 동일한 점: 하늘, 땅, 조상에게 술/음식을 바침(케우리, 고수레)

✓ 다른 점: 테우리 고사인 경우 술병을 들고 입에 술을 부어 사방으로 뿜어 줌(3반복)



몽골 vs. 제주



백중제(구좌읍 하도리)

식생활 용어 몽골어의 잔재: ②8

[‘구덕’ 정 ‘고렘’ 가다, ‘고이’ 가다, ‘고적’]



- [고렘]은 몽골어 ‘qurim’의 차용어 ‘바구니’의 뜻으로 쓰이는 ‘구덕’은 몽골어 ‘quduz’에서 차용된 개연성
 - [고렘가다] 같은 친척끼리 모이러 가는 것
 - [고적]은 몽골어 ‘kesig’ (보시하는 물건)
- 제주도에서 장사가 났을 때 친척끼리 만들어 가는 부조떡

강영봉: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의 비교 연구(1999)

식생활 용어 몽골어의 잔재: ‘허벅’ ②9

제주 물허벅(물구덕) 여인 vs. 몽골여인

여자들은 비록 7, 8세의 아이라도 모두 머리를 두 가닥으로 땋아 묶어서 쪽을 지었다. 언어는 재재거리는데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남자와 여자는 길가에서 우뚝서서 바라보며 남정들은 모두 가죽옷을 입고, 가죽 모자를 썼으며,



몽골여인



[속종 5년 12월 초8일 기사(己巳)]

가죽감테



모르허벅+항

몽골 문어 : qobuza(weil bucket; trough; ditch, gutter)

오르도스 : xowō(auge pour abreuver le bétail)

강영봉: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의 비교 연구(1999)

몽골 심방 vs. 제주 옷뜨르 (목축) 심방 ②

제주도 풍속에 산·숲·냇물·못·언덕·분묘·나무·돌 등이 있는 곳에 신사(神祀)를 차려 놓고 매년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 무당과 박수가 신장 깃발을 들고 나와 나례굿[儺戲]을 행하는데, 징과 북을 울리면서 앞을 인도하여 마을 거리를 드나들면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곡식을 내놓으며 신에게 제사를 올린다. 이것을 화반(花盤)이라고 한다.

[東國輿地勝覽]



濟州俗凡於山藪川池邱陵墳衍木石俱設神祀每自元日至上元巫覡擎神蠹作儺戲鐃鼓前導出入閭里民人爭捐財穀47)以賽神名曰花盤

몽골 신당 vs. 제주신당



절하고 빌기 -> 돈 떼내기(속전속결)
-> 고별인사 -> 점방에서 사먹기

-잘못하면 몸이 아픈다
-반드시 부모 모르게 사 먹어버려야
-모험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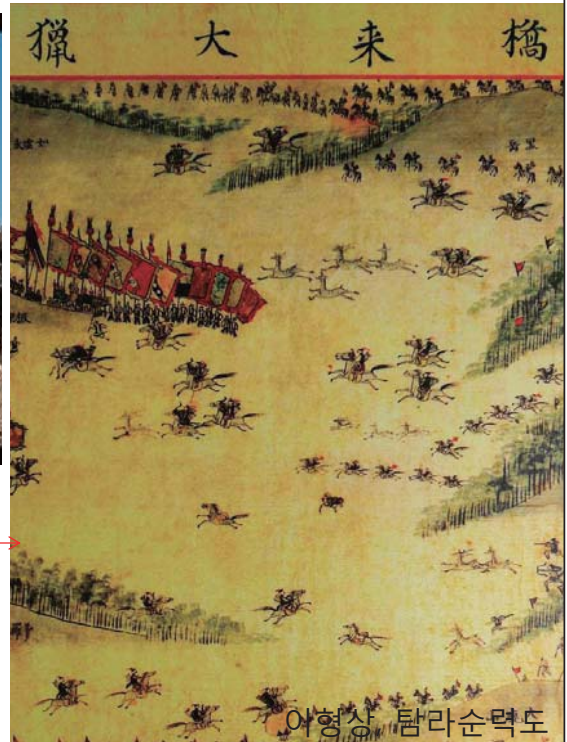
몽골 사냥 VS. 제주 옷뜨르 사냥 ③①



1702년(숙종 28) 10월 11일 시행. 교래 지경에서 진상을 위한 산짐승과 날짐승을 사냥하는 그림. 말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 몽골인 수렵도와 비슷

군사훈련을 겸함

사냥에 동원된 인원은 말을 타고 사냥하는 마군(馬軍) 200명, 걸어서 짐승을 일정한 장소로 모는 보졸(步卒) 400여명, 포수(砲手) 120명이다. 사냥을 통해 얻은 물건은 사슴 177마리, 돼지 11마리, 노루 101마리, 꿩 22수(首)



몽골 돌테 vs. 제주 돌테



몽골 vs. 제주의 복식문화-가죽옷 31

분류	제법 및 특징	비 교	
		같은 점	다른 점
몽골	-몽골 유목민족은 동물의 뇌장(腦漿)이나 골수(骨髓)로 무두질 -재료: (가축)오축 (사냥물) 토끼, 사슴, 멧돼지, 타르박, 양기르, 제르, 야생마		
제주	○성행 장소: 조천읍 교래리(목축마을) -재료: (가축) 말, 소, 개 / (사냥) 노루, 오소리, 산돼지 -용도: 외투, 모자, 신발, 주머니, 무구(武具) (고려, 조선시대 朝貢品-탐라모피;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조자: 중산간촌 남성('사농바치') -재료: 피(皮; 탈가죽), 가죽(털 제거) -방법: 수축방지(늘이기 건조법), 부패방지(훈연, 소금물 침지), 연화(돼지기름 도말; '개가죽 풀한다') -궤메는 실: 말/소의 힘줄, 말/소가죽을 가늘게 오린 갑실 -작업계절: 겨울(50년대 까지; 개가죽 두루마기, 털모자, 가죽버선) <cf> 제주갈옷: 타닌(설익은 재래감) 복합 무두질기술 변형(?)	기름무두질법 연기무두질법	사냥물 모피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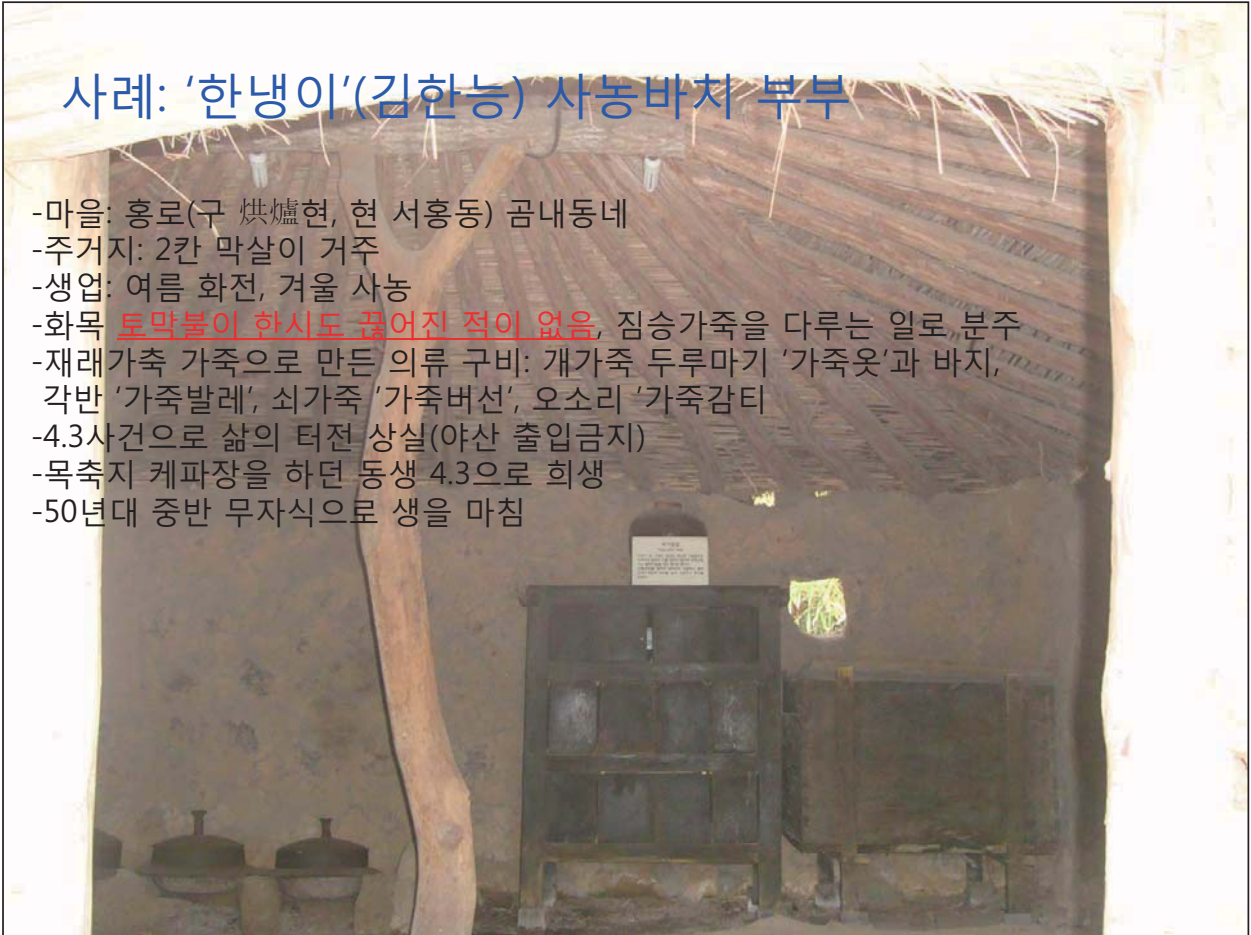
'지들커'-말뚝연료 21

-유사점 : 난방연료(굴묵 vs. 취사 및 난방)



사례: '한냉이'(김한능) 사농바치 부부

- 마을: 홍로(구 烘爐현, 현 서흥동) 곰내동네
- 주거지: 2칸 막살이 거주
- 생업: 여름 화전, 겨울 사농
- 화목 토막불이 한시도 끊어진 적이 없음, 짐승가죽을 다루는 일로 분주
- 재래가죽 가죽으로 만든 의류 구비: 개가죽 두루마기 '가죽옷'과 바지, 각반 '가죽발레', 쇠가죽 '가죽버선', 오소리 '가죽감티'
- 4.3사건으로 삶의 터전 상실(야산 출입금지)
- 목축지 케파장을 하던 동생 4.3으로 희생
- 50년대 중반 무자식으로 생을 마침



제주 목축인



몽골의 두식(여진족)

가스름, 목축마을의 문화



양왕자터

- 위치 : 和順里 333번지 사거리 일대
- 傳說과 옛 기록에 의하면 이 고장의 設村 과정에 梁王子가 등장하는 데 梁王子가 爵位를 받은 후 이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관한 정확한 고증 자료가 없어 알 길이 없으며, 지금은 和順里 변화가로 자리 잡았다.



사례 : 지자체 차원의 몽골교류



한국과 몽골간 자치단체 교류 현황

(2012년 8월 현재)

국내자치단체	몽골자치단체명	연도	비고	국내자치단체	몽골자치단체명	연도	비고
서울특별시 본청	울란바타르 시	1995	자매	경기도 고양시	돈드 고비 아이막	2009	우호
서울시 종로구	울란바타르 시, 쉰후바타르구	1996	자매	경기도 남양주시	울란바타르 시	1998	우호
서울시 중구	울란바타르 시, 바양골 구	1999	우호	경기도 포천시	도르노드 아이막	2007	우호
서울시 광진구	울란바타르 시, 한-울 구	2001	자매	경기도 광주시	도르노 고비 아이막	2004	우호
서울시 성북구	울란바타르 시, 쉰기노하이르한 구	2003	우호	강원도 본청	투브 아이막	2003	자매
서울시 동작구	울란바타르 시, 바양주르후 구	1997	자매	강원도 평창군	알란바타르 시쉰기노하이르한 구	2008	우호
서울시 송파구	울란바타르 시, 칭길태 구	2005	우호	충청북도 옥천군	알란바타르 시, 쉰후바타르 구	2008	우호
서울시 강동구	울란바타르 시, 쉰기노하이르한 구	1999	자매	충청남도 서산시	자브항 아이막	2004	자매
부산광역시 서구	울란바타르 시, 바양주르후 구	2003	우호	충청남도 청양군	아르항가이 아이막	2007	우호
대구광역시 동구	불간 아이막	2008	우호	전라북도 고창군	투브 아이막, 밧숨부르 쉰	2009	우호
인천광역시 남구	투브 아이막, 존모드 시	2005	우호	전라남도 영광군	울란바타르 시, 바양골 구	2007	우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울란바타르 시	2005	우호	경상북도 의성군	셀렝게 아이막, 만달 쉰	2008	자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울란바타르 시, 쉰기노하이르한 구	2007	우호				

주몽골한국대사관 <http://mng.mofa.go.kr>

자치단체교류 모범사례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는

- 가장 먼저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자체이며 가장 성공적으로 유지
- 울란바타르시(Ulaanbaatar City)와 1998년 10월 28일 우호협력 체결

✓ 배경

- 199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에서 한국 통일정책 홍보를 위해 몽골방문
- 민간차원 교류를 계기로 1997년 주한·몽골대사관 영사와 몽골국립대학교 총장이 남양주 시를 내방하여 자매결연 희망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

✓ 교류내용

- 1998년 우리 시 먹골배 수출계약 추진
- 농자재 및 농기계 수출계약을 추진으로 2001년 몽골 남양주문화관 개관
- 2007년 남양주거리 조성 등을 통해 몽골 홍보 기반 마련
- 2000년 몽골문화촌 건립 및 울란바타르시 몽골민속공연단 초청 공연
- 2000년~ 청소년 교류 상호 추진

✓주목할 점: 일방적인 원조 교류가 아닌 특산물 수출 등의 상호 동등한 교류라는 점
향후 공무원 상호파견을 통해 문화교류의 체계적 관리 추진을 예정

✓ 숙제: 다양한 교류프로그램(시민참여 워킹그룹에서 시민 아이디어 및 직접 참여 유도)

오늘의 제주와 몽골의 만남

제주~몽골 하늘길 열리다



2011년 12월 07일 (수) 14: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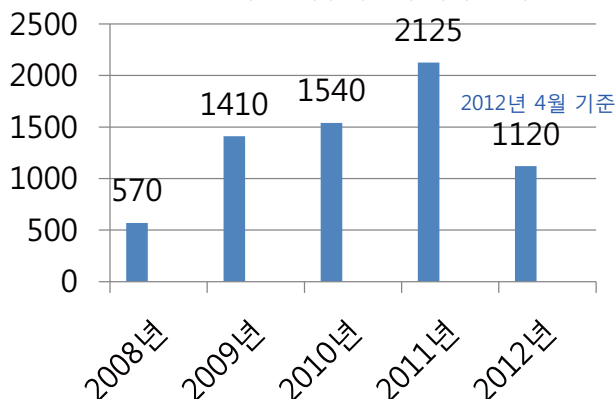


Departure (Ulaanbaatar) Arrival (Jeju) Airlines Days Flight No.
9:00 AM 1:35 PM MIAT Mongolian Tue 7309

탐라-몽골의 만남은 다시 시작되었다

몽골관광객 제주입도 현황

(자료: 제주의소리 기사를 재편집)



- 최근 5년간 제주를 찾은 몽골 관광객은 2008년 570명에서 2011년 2125명으로 증가 추세
- 2012년 4월 현재 1120명
 - 매년 10%이상의 경제성장률
 - 10월 ~3월 강추위 (2~3개월 남쪽 국가 장기 체류 선호)



몽골촌

モンゴル民族衣装を着て記念写真



モンゴル料理体験



素朴なモンゴル式のフェルト作りで小物作り体験



モンゴル体験



馬と矢は戦士の歴史を持つ武器でした。今はモンゴルで毎年行われている「ナーダム祭」の弓馬・相撲・馬射が、人気の中心となっています。男女を問わず子供から老人まで参加できます。



モンゴルの弓射体験

自然と動物と人のふれあいがいっぱい

まかいの牧場

富士山 悠久の郷



自然を贅沢に体験して
夜はモンゴルに負けない満天の星空の下で遊牧民気分・・・

결론 및 제언



바람의 고향 몽골 초원에서 탐라 옷뜨르까지



Mongolian spot

결론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 13세기말 ~ 14세기 100년(3대) 동안 몽골과의 만남은 탐라-원 문화의 상호교류와 융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전쟁을 통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문화 교류
(집단 이주, 세계적 사례로 그 가치가 있음)

- 몽골 유목민 문화의 변형 과정을 제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동질성과 차별성의 존재)
- 몽골초원 -> 제주 오름 마을로 거주지 이전 즉, 자연풍토 변화에 따른 문화 적응원리 발견
- 원난성/왕족 집단 이주 즉, 문화변용그룹의 이주에 따른 제주문화의 다양화 진행
- 북방 유목민 문화+남방 해양문화=제주문화



東越耽羅 / 北踰火里禿麻 / 西至甘肅 / 南暨雲南等地-> 凡一十四處(문화교류)

결론

문화는 의존의 법칙(law of dependence)과 연속성의 법칙(law of continuity)에 따라 끊임 없이 변용과 적응과정을 거친다.

한 집단에서 문화의 변용과 적응과정은 결코 어느 날 돌발적으로 발생하지도 않고 또 우연히 일어나지도 않는다.

- 향후 과제...
 - 탐라 몽골학 분야 구축: 주변 해양지역/몽골 지방/원난성 몽골족/중앙아시아와 제주문화의 비교연구
 - 동아시아 속의 제주문화 정체성 규명:
 - ☞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필수요건
 - ☞ 제주의 Glocalization을 위한 문화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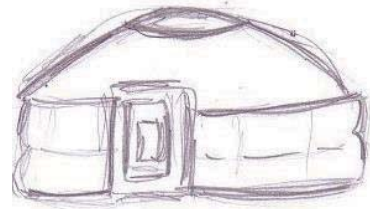
제언 '탐라 몽골학'- 비교연구 분야(예시)

분 야	비 교 대 상 (예 시)
언어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 목축관련 차용어, 지명(오름, 목축지, 해안포구)
문학	구비전승(설화, 목축민요, 본풀이, 민담), 속담, 금기
체질문화	형질(안면, 골격), 몽골족 유전자 분석, 의료·위생·보건
인물	고려사 탐라인물 및 행적, 탐라몽골족 마을, 마을별 성씨 분포, 성씨도래
무속문화	중간간 목축마을 무속, 뱀신앙, 별신앙, 당굿, 신당, 무구
관혼상제	매장문화, 제례법, 혼례, 혼인권역, 기타(세시풍속, 생육습속, 요람)
복식문화	가족가공(무두질), 바느질, 가족옷(외투, 모자, 버선), 신발, 머리수건, 치장 및 화장, 심방옷, 우장, 옷감염색
주거문화	몽골게르 vs. 외기둥집(말코지집), 봉덕, 말테우리처, 건축기술
생산기술과 민속(목축·수렵)	마소치기(조랑말, 흑우), 토종개, 백종제, 낙인제, 목축법, 마구, 농기구, 화전, 질병치료법(약초 포함), 마차, 도정시설, 말부리기, 말총이용, 유목 마을, 사료작물, 활쏘기, 물이사냥, 개사냥, 코넣기, 덧, 분배방식
놀이문화	넉동베기, 조리희, 말타기, 공기, 굴렁쇠, 방광차기
조형물 및 유적	돌하루방(훈출로), 봉수대, 당포(말운송), 사찰, 불상, 석탑, 범섬, 오름, 지형, 무덤, 비석, 암각화, 회화, 삼별초 유적, 환해장성, 탐라총관부

•예래현청터 복원
•제주 특정 씨족 몽골족 인증 사업
-양왕자터 복원 사업

탐라-몽골 문화공동체 구축

- 몽골문화 + 중산간 특성화 = 유목문화촌
- 몽골 약초생산기지+제주가공단지 = 제주 뷰티산업 연계
- 말생산기지 = 말산업활성화
- 농수산물 수출
- 풍력에너지 산업(고비사막 vs. 제주해풍)
- 1차산업 노동력(감귤따기 등)



참고문헌

1. 김일우(2008)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도서출판 신서원
2. 오영주(2014) 최근 발굴 제주 예래동 묘지 동하르방과 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의 동질성과 차별성, 2014 한국몽골학회 제34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년 3월 28~29일, 서울서교호텔 대강당
3. Dorgotov N et al(2006)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Monsudar Co. Ulan.
4. 小長谷有紀(2005), 世界の食文化-モンゴル, 農村漁村文化協
5. 김일우(2008)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 32, 143-172
6. 玉井和江, 吳榮周(2006), ふるりの味 濟州島, 大學書林
7. Oktyabr J(2007) The Traditional Cooking of the Mongols, NEPKO Pub.
8. Robinson C(2008) Mongolia-Nomad Empire of eternal Blue Sky, Odyssey Books & Guides, Hong Kong.
9. 오영주(2013) 탐라의 몽골인 740년 삶의 자취, 2013 한국몽골학회, 제33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년 3월 29일, 서울시립대학교
10. 김동전(2010)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 호적중초에 보이는 본관명 '大元' 가문의 사례분석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 13(2) 301-328
(그 외 인용논문은 투고과정에서 상세히 밝힐 것임)

Bayar lalaa!



몽골 테를지에서 표선 가스름까지

